韓國의 勞動市場構造

裵 茂 基

<目 次>

I. 序 說
II. 勞動市場論의 接近方法
1. 勞動市場의 區分과 勞動市場論
2. 勞動市場의 需要·供給分析
3. 其他要因分析
4. 韓國勞動市場分析의 對象
III. 韓國勞動力의 存在樣態와 就業構造
1. 生産年齡人口, 經濟活動人口 및 經濟活動參加率
2. 就業率 및 産業別 就業者構成
3. 職業別 就業者의 構成
4. 從事上의 地位別 就業者構成
IV. 失業 및 不完全就業構造
1. 失業構造
2. 不完全就業構造
V. 女子 및 少年勞動
1. 女子勞動
2. 少年勞動
VI. 韓國勞動市場의 需要構造
VII. 韓國勞動市場의 供給構造
1. 新規學校卒業者와 企業內 昇進
2. 農民分解
3. 都市過剩人口의 堆積問題
VIII. 勞動移動의 特徵
IX. 職業安定機構와 그 機能
X. 結 語

I. 序 說

勞動市場이란 勞動力이라는 商品이 去來되는 곳을 말한다. 즉 勞動力의 供給者(販賣者)인 勞動者와 需要者인 雇傭主가 만나는 場所를 가르킨다. 그러나 勞動力이라는 商品은 반드시 어떤 特定의 場所에서만 供給者와 需要者間에 去來가 成立되는 것이 아니고 場所라는 槪念을 떠나서 여러가지 複雜한 經路로 去來(雇傭)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넓게는 勞動力의 供給과 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各種要因이 勞動市場의 把握을 위하여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勞動市場의 槪念은 狹義로는 勞動力의 供給者와 需要者가 만나는 特定의 場所로 생각하고 廣義로는 勞動力의 去來에 영향을 미치는 諸般條件 또는 事情, 즉 需給에 영향을 미치는 各種要因까지 포함한 需給을 둘러싼 問題로 보면서 兩者를 包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理由는 勞動力이라는 商品이 지닌 特殊性에 基因한다. 즉 餘他의 一般商品의

需給分析에서라면 外生變數 乃至 與件으로서 一旦 直接的 分析의 對象에서 除外될 領域 또는 次元까지도 勞動力의 경우에는 매우 密接한 關聯을 가지는 것으로 分析의 對象이 된다.

資本主義社會는 勞動力이 商品으로 되는 하나의 特徵을 갖는다. 그러나 이때 勞動力은 去來의 對象物로서 스스로 하나의 價格(賃金)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商品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商品의 範疇에 드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勞動力을 除外한 모든 餘他의 商品과는 異質的 要因을 가지고 있다. 勞動力은 그 所有者인 勞動者의 肉身에서 分離되어 對象化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勞動者는 雇傭主와 法律上 平等한 人格으로서 自身의 勞動力을 商品으로서 販賣할 수 있어야,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時間을 定하여서 그 동안만 勞動力을 販賣하고 자기자신 모두를 販賣하여 奴隸로 되지 않아야만 그러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勞動力은 또한 販賣를 目的으로 한 勞動生產物이 아니며 勞動者의 消費生活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면서 商品으로 되는 點에서도 特徵的이다. 그러므로 勞動力의 供給者로서의 勞動者는 供給의 調節에 전혀 無力하다. 勞動力의 去來條件이 不利해지면 勞動者는 오히려 不足한 收入을 메우기 위하여 勞動市場에 勞動力의 供給을 더 增加시키며 이 점에서 小農의 行動樣式과 恰似하다. 勞動力의 賣買契約은 平等한 人格間의 契約이면서도 買入者가 자기가 買入한 勞動써비스의 確保를 위하여 勞動力販賣者의 人格에 대한 一定한 支配關係를 設定하는 契約이기도 하다. 用益을 購入한 者에 대하여 用益物에 대한 支配權의 確保는 當然하기 때문이다. 勞動力이라는 商品이 지닌 이와같은 特性을 背景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市場이 바로 勞動市場이다. 즉 勞動市場은 어디까지나 商品의 去來關係를 基本으로 하면서도 前述한 바와 같은 勞動力이라는 商品의 特殊性이 고려되어 一般商品市場과 區別되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는 것이다.

生產活動은 어떤 社會에 있어서나 그 社會의 維持發展을 위하여 가장 重要한 活動中의 하나이다. 勞動은 生產要素의 하나로서 生產活動에 대하여 制約要因이 될 뿐 아니라 勞動自體로서도 勞動者의 生活水準이라든지 失業이라든지의 重要한 側面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勞動의 問題를 해결하고 勞動의 社會的 機能을 가장 正常的으로 發揮토록하는 場이 바로 勞動市場이다. 雇傭과 失業과 같이 勞動에 대하여 가장 큰 意味를 지니는 現象도 勞動市場에서 나타나며 賃金水準의 決定이라든지 勞動의 移動, 나아가서는 長期的인 勞動政策의 樹立도 勞動市場의 構造 乃至 變動의 分析을 통하여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基本的으로 相對的 過剩人口를 背景으로한 豊富하고도 低廉한 勞動力의 存在(供給) 때문에 勞動市場의 槪念이 없이 지나왔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勞動行政當局에서 대상으로 하고있는 職業安定事業을 中心으로한 좁은 의미의 勞動市場 개념

이 거의 전부였었다. 그러나 그동안 勞動을 둘러싼 事情은 急速히 變化되어 와서 部分的인 技能勞動力의 不足現象이 대두되었고 賃金問題나 失業問題, 婦女勞動, 職業安定業務, 勞動組合問題, 長期的 勞動力計劃問題 등등 과거와는 달리 多角的이면서 綜合的인 硏究, 分析이 要請되고 있다. 本稿는 이러한 意要性에 副應한다는 立場에서 韓國의 勞動市場構造에 대한 分析을 試圖해 본 것이다.

本稿의 分析方法은 다음 II의 勞動市場論의 接近方法에서 韓國의 勞動市場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具體的인 分析이 要求되는 主要한 側面을 抽出하여 그에 대한 硏究, 檢討를 통하여 우리나라 勞動市場構造의 特徵을 解明하는 方法을 取하고자 한다.

II. 勞動市場論의 接近方法

韓國의 勞動市場構造에 대한 具體的 分析에 들어가기에 앞서 勞動市場構造의 把握方法 乃至 勞動市場論의 接近方法에 대한 檢討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勞動經濟學이 이미 勞動力이란 商品을 一般的商品에 비하여 抽象의 次元을 더 낮춘, 보다 具體的이고 特殊的인 것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와같은 勞動力 또는 勞動市場 一般보다도 더욱 制約的인 것으로서 첫째 經濟의發展段階가 낮은 後進國的이며 둘째 相對的 過剩人口를 가진 國民經濟를 分析對象으로 하면서 勞動市場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앞서 우리는 勞動市場의 槪念을 狹義로는 職業安定事務所나 職業紹介所와 같이 勞動力의 需要, 供給者가 만나는 一定한 場所로 생각하고 廣義로는 勞動力의 去來에 영향을 미치는 諸般條件 또는 事情 즉 需給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各種要因으로 보면서 兩者를 包括하는 것으로 보았다. 勞動市場을 이와같은 것으로 본다고 할 때 그러면 勞動市場의 構造를 把握하기 위하여 과연 어디에서 무엇부터 접근해 가야 할 것인가가 問題로 된다.

1. 勞動市場의 區分과 勞動市場論

가장 먼저 우리들이 검토하여 보아야할 문제중의 하나는 勞動市場으로 하여금 몇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이게 하는 몇가지의 標識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勞動市場을 區分시켜주는 標識로는 具體的인 有用勞動의 形態가 될 수도 있겠고, 單純·複雜勞動을 기준으로하는 熟練度일 수도 있겠으며 地域, 性, 또는 年齡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標識에 따라 勞動市場을 各各 몇개의 範疇로 區分할 수가 있다.

우선 具體的 有用勞動을 基準으로하여 勞動市場을 區分하여 본다면 人間의 勞動이 具體的으로 發揮되는 各各 相異한 質의 勞動 即 농사를 짓는 勞動, 나무를 깎는 勞動 또는 熔

接을 하는 勞動 등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現實로서는 相異한 職種別 勞動市場을 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勞動市場은 이와같이 使用價値를 달리하는 具體的 有用勞動에 의하여 여러개의 職種別勞動市場으로 區分할 수가 있다. 이 職種別 勞動市場은 좀 더 크게 이를 分類한다면 결국 産業別勞動市場으로 된다. 如何間 職種別 또는 産業別 勞動市場은 職種間 또는 産業間에 附加價値率이나 賃金水準 또는 勞動條件 등에 甚한 不均衡이 있는 곳에서는 細部的으로 그와같은 問題를 分析하는 것이 훌륭히 勞動市場論의 하나의 側面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單純勞動, 複雜勞動과 같이 熟練度를 基準으로 하여서도 勞動市場을 區分할 수가 있다. 이것은 具體的 有用勞動의 形態와는 관계없이 熟練度에 따라서 專門職業者勞動市場, 熟練者勞動市場, 未熟練者勞動市場, 不熟練者勞動市場 등으로 區分하는 것을 말한다.(1) 熟練度에 의하여 勞動市場을 區分하여 보는 것은 例컨대 熟練勞動者의 社會的供給이 需要에 比하여 不足한데 未熟練 또는 不熟練勞動者의 그것은 오히려 過剩狀態라든지 혹은 技術의 發展에 따라 소위 勞動의 稀釋化(dilution)가 進行된 결과 熟練勞動者의 低熟練 乃至 不熟練勞動者에 의한 代置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技術教育을 위하여 熟練度別 勞動力構成과 그 背景을 파악할 必要가 있을 때 등에는 重要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地域別, 性別 및 年齡別 勞動市場을 槪念化하는 것도 意義가 크다고 생각된다. 地域別 勞動市場은 勞動力의 供給事情과 그에 대한 企業側의 需要事情이 地域別로 얼마든지 隔差가 存在할 수 있고 그것은 勞動力의 自由로운 移動을 沮害하는 各種의 要因에 의하여 賃金水準을 비롯한 여러가지 側面의 隔差가 경우에 따라서는 固定化될 可能性도 있을 수 있으므로 地域別로 勞動市場을 區分하여 이를 考察하는 것도 역시 必要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男女性別 勞動市場을 區分하는 것은 特히 家計補充的인 婦女勞動者에 대하여 男子의 勞動과 同一한 質量의 勞動의 경우에도 賃金등에 差別化를 施行하는 例가 많고 前述한 소위 勞動의 稀釋化의 결과 이러한 現象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그와같은 경우 婦女勞動市場에 대하여 獨立的인 分析이 必要하다는 의미에서 性別 勞動市場 區分의 意義를 찾을 수가 있다. 끝으로 年齡別 勞動市場區分은 婦女勞動에 대하여 人爲的인 差別待遇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少年勞動에 대하여도 많은 경우 差別化를 行하고 있고 또한 年功序列型 雇傭構造와 같은 制度的인 差別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勞動市場을 年

(1) 熟練度別 區分은 물론 單純·複雜勞動으로 表現하는것과 같은 순전히 量的으로 還元할 수 없는 性質도 포함되는 것이나 여기서는 具體的 有用勞動이 表示하는 勞動의 質的差異가 아닌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單純複雜의 表現을 使用하였다.

齡別로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는 勞動市場을 區分해 보는 標識로서 學歷이라든지 大企業, 中小企業과 같은 企業의 規模라든지 常雇 臨時雇, 또는 日雇등과 같은 雇傭契約의 期間乃至 形態를 들 수도 있다.

以上에서 보아온 여러가지 標識에 의하여 區分이 可能한 勞動市場을 各各의 屬性에 따라 考察하는 것은 분명히 勞動市場의 構造를 把握하는 하나의 有效한 方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視角을 약간 달리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側面에서 勞動市場의 分析方法을 생각해 보자.

2. 勞動市場의 需要·供給分析

勞動市場이 勞動力의 去來가 이루어지는 場인 이상 이 去來에 直接的으로 또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去來의 前提가 되는 需要와 供給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視角에서 생각할때 勞動力의 需要를 規定하는 各種要因과 供給을 制約하는 各種要因이 檢討되어야 될 것이다. 더우기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勞動力의 需要·供給은 先進諸國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이미 形成되어 있는 一定한 勞動市場內部에 있어서의 需要·供給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勞動市場內部와 外部와의 관계가 더욱 重要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前近代的 產業部門인 農業 및 農村에서 近代的인 勞動市場으로의 勞動力의 移動과 勞動市場으로부터의 移動이 重要性을 가지게 된다.(2)

1) 需要分析

이상과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需要의 側面을 考察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要因들이 分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勞動力에 대한 需要는 궁극적으로 資本에 의하여 左右되는 것이므로 어떤 國民經濟의 總體的 資本蓄積過程이 勞動力의 需要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아야 한다. 즉 어떤 國民經濟의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特殊性이 資本蓄積過程의 特殊性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考察할 必要가 있어 여기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대개 네가지의 側面인 것 같다. 첫째로는 어떤 나라의 전체적인 資本蓄積의 程度가 어느 段階에 와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資本主義發展의 歷史發展段階的인 角度에서 파악될 수도 있겠고

(2) 東畑精一 監修 隅谷三喜男 編, 『아시아의 勞動問題』 1971, pp. 7-8 및 隅谷三喜男 著, 『勞動經濟論』 1969, p. 88 參照.

비슷한 내용이지만 槪括的으로는 鑛工業部門에 있어서의 資本蓄積의 量을 通해서도 할 수 있겠다. 勞動需要의 規制要因이라는 立場에서는 물론 이 量은 絶對的인 것 보다는 全產業部門 또는 勞動力總數와 관련을 갖는 오히려 相對的槪念이 더욱 큰 意義를 지니겠지만 如何間 資本蓄積의 規模가 가장 根源的으로 勞動力需要를 規制하는 要因이라는 사실에는 變함이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產業構造 및 鑛工業構造의 變化 및 一時點에 있어서의 特殊性을 들 수 있다. 產業構造의 變動은 必然的으로 產業間에 勞動市場事情의 變動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產業間의 勞動移動을 誘發시킨다. 그리고 鑛工業構造는 우선 規模面에서 볼 때 大企業과 中小企業이라는 二重構造가 深化되어 있는 곳에서는 勞動市場에 있어서도 大企業部門의 勞動市場과 中小企業部門의 勞動市場間에 一種의 非競爭集團으로서의 市場의 廢鎖性 또는 階層性을 惹起시키며 勞動市場의 開放的性格도 企業의 規模에 따라 대체로 差異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에 대한 考察이 必要하다. 셋째로는 技術의 進步와 關聯되는 問題이다. 資本蓄積과 技術의 進步 乃至 革新과는 雙生兒와 같은 것으로서 資本의 蓄積은 技術進步를 가져오고 技術이 進步됨에 따라 勞動力需要는 質的으로 變化를 받을 뿐 아니라 可變資本部分에 대한 不變資本部分의 比率을 高度化시켜 勞動力需要의 量에도 變化를 미친다. 技術의 進步는 한편에는 技術者 또는 高度의 熟練勞動者를 存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多能 乃至 萬能熟練을 分解시켜, 大部分을 半熟練工으로 存續시키는 一種의 兩極分解를 가져온다. 技術의 進步는 따라서 職種內와 職種間, 產業部門間에 걸쳐서 勞動의 代替性을 擴大하고 勞動市場의 開放과 競爭을 促進하며 勞動市場單一化의 技術的 條件을 形成시켜준다.(3) 技術의 進步는 이 밖에도 高度의 技術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現代企業에 대하여 「新技術의 開發과 企業化를 위한 硏究, 試驗, 檢査 등의 硏究스탭을 必要로 한다든지 또한 流動作業方式의 採用이나 作業의 標準化, 連續化등은 直接生產者를 相對的으로 減少시키지만 그 準備나 調整의 必要때문에 間接要員을 增大」(4)시킴에 의하여 불루 칼라에 대한 화이트 칼라의 比重을 增大시키는 要因이기도 하다.(5) 勞動力의 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네번째의 要因은 制度的 側面의 것이다. 이것은 獨占資本의 性格, 나아가서는 國家의 勞動政策, 勞動組合의 資本에 의한 勞動市場差別化에 대한 抵抗의 強度, 其他 經濟的, 經濟外的인 制度的 諸條件을 말한다. 勞動市場差別化政策, 特定部門에 있어서의 勞動組合活動의 規制, 社會保障制度, 最低賃金制 등등은 모두 이 範疇에 드는 것들로서 勞

(3) 岸本英太郎 編, 『勞動經濟論入門』 1969, p. 53 參照.
(4) 氏原正治郎 編, 『日本의 勞動市場』(講座勞動經濟 1.), 1968, p. 15.
(5) 화이트 칼라의 增加趨勢에 대한 實證的 資料로는 다음을 參照할 것. L.G. Reynolds,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4th ed., 1964, pp. 333-335.

動市場에 直接, 間接的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明白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6)

2) 供給分析

勞動市場에서의 需要側面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供給側面에서 直接間接으로 勞動市場을 規制하는 要因도 적지 않다.

勞動市場에 있어서 勞動力의 供給을 말 할때에는 보다 直接的인 勞動市場內部에서의 供給과 間接的인 勞動市場外部로부터의 供給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本章의 序頭에서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產業化한 國民經濟의 勞動市場을 分析의 對象으로 한다면 正常的으로는 勞動市場內部에서의 需要供給이 問題로 되고 市場外部와의 關聯은 별로 意味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아시아的인 過剩人口를 가진 後進國을 對象으로 할 때에는 勞動力이 現實的으로 都市와 農村間을, 換言하면 勞動市場의 內外로 流出流入을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않고 또한 勞動市場外部에 存在하는 過剩勞動力이 市場內의 勞動者에 대한 勞動條件이나 賃金水準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아시아的인 過剩人口를 가진 後進諸國에서의 勞動市場論은 前者인 市場內의 供給보다 오히려 市場內外의 관계 또는 外部的인 過剩人口의 存在形態와 그것의 勞動市場에의 滲入問題가 더욱 注目의 對象이 된다.

먼저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供給부터 본다고 하면 供給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源泉에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勞動市場에 具體的으로 登場한 新規勞動力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어떤 特定의 職業 또는 產業에서 勞動力의 過剩이 發生하여 그것이 餘他部門에의 供給源이 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둘째의 것과 現象形態는 비슷하지만 移動의 原因이 반드시 過剩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產業間, 職業間, 地域間의 勞動力의 移動을 들 수가 있다. 넷째로는 同一企業內에서의 昇進과 같은 垂直的인 移動으로서의 供給도 들 수가 있다. 앞서 序說에서도 본 바와 같이 勞動力이라는 商品은 一時에 購入하여 貯藏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勞動力의 提供은 每日 一定時間當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雇傭中에 있는 勞動力도 勞動市場의 領域에서 脫落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네번째로 든 技術敎育·訓練의 결과로 또는 其他에 의한 昇進으로, 일어나는 同一企業間에 있어서의 昇進도 勞動의 移動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勞動市場內部에 있어서의 勞動力의 供給要因外에 勞動市場의 外部에서 勞動市場에 대하여 全體的인 供給條件을 規制하는 것으로서 보다 源泉的이며 또한 廣範圍한 要因들을 들 수가 있다.

(6) 獨占資本과 勞動市場과의 관련에 대하여는 竹中惠美子·中村俊子, 『勞動市場과 賃金決定』 社會政策學會 編, 『勞動市場과 賃金』, pp. 23-24 參照.

이러한 觀點에서 分析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農業과 農村에서의 勞動力의 流出의 形態이다. 이 過程을 올바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農民分解의 特徵 나아가서는 農村에 있어서의 共同體分解의 形態와 程度·家族制度 등의 特徵이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諸般要因들이 勞動市場에 대하여 勞動力의 供給量은 물론 勞動者의 소위 定着性問題(週期的 歸村 또는 都市定着의 문제), 都市의 過剩人口堆積問題 등을 크게 規制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農民分解의 過程이 그나라의 過剩人口 또는 過少人口의 存在樣式을 어떻게 規制하고 있으며 勞動力供給의 가장 源泉的인 特質을 어떻게 規制하고 있는가에 대한 分析과 함께 그나라의 人口의 構造變動에 대한 分析도 併行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人口의 增加率이라든지 年令階級別人口의 構成, 地域別 分布, 地域間 移動, 生產年令人口와 經濟活動人口의 構造등이 分析의 對象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供給側面의 特殊한 問題로서는 婦女·少年勞動者의 雇傭構造와 그들이 勞動市場에 나타나게 되는 經濟的 背景 그리고 國民經濟의 特殊性에 따라 顯著히 問題點으로 등장되는 特定部門의 技能工의 不足問題라든지 아니면 新規學校卒業者의 不足問題등이 그때 사정에 따라 追加的으로 分析되어야 할 對象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其他要因分析

지금까지는 勞動市場을 몇가지의 範疇로 區分하여 各勞動市場의 特徵을 分析하는 接近方法과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勞動需要 및 供給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要因들을 分析함으로써 勞動市場의 構造를 파악하는 方法등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勞動市場을 가장 包括的으로 파악하는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만으로서는 勞動市場의 構造를 滿足스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面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몇가지 重要한 側面이 補足的으로 考慮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그러한 側面으로서 첫째 勞動移動의 特徵, 둘째 失業 및 不完全就業의 構造, 셋째 職業安定機構와 그 機能, 넷째 賃金構造, 다섯째 勞動組合과 勞動市場의 다섯가지가 分析의 對象이 된다고 보며 이하에서 간단히 言及하고자 한다.

첫째 勞動移動의 特徵이란 勞動者가 勞動市場에서 가장 현저히 自己의 形態를 露出시키는 경우는 雇傭이 시작되는 點과 끝나는 點, 換言하면 採用과 解雇는 勞動市場의 問題가 가장 集中的으로 表現되는 領域이라는 觀點에서 勞動의 移動狀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入職과 離職에 대하여 分析하고 그곳에서 어떤 特徵을 抽出해 내는 것을 말한다. 入職에 대해서는 入職者數와 入職率등을 入職의 經路別, 前職經歷別 그리고 年齡階級別 등으로 볼 必要

가 있으며 離職에 대해서는 離職의 理由, 勤續年數別, 年齡階級別 등으로 考察할 必要가 있다.

둘째는 失業 및 不完全就業의 構造이다. 失業이란 勞動者는 生命을 가진 人間으로서 계속 消費生活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存在이고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採用과 解雇, 失業은 勞動市場의 문제가 集中的으로 表現되는 領域이었던데서 當然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完全失業外에 不完全就業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아울러 分析對象이 된다.

세째는 職業安定機構와 그 機能이다. 職業安定業務를 가장 좁은 意味에 있어서의 勞動市場機能으로서 廣義의 勞動市場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勞動市場의 機能을 促進시켜 주는 補足的인 機構라고 할 수 있다. Reynolds는 勞動市場의 機能을 相對賃金率의 決定이라든지 國民總生產이 上昇할 때 一般的인 賃金水準도 上昇케하는 것이라든지 相異한 職種과 熟練度를 가진 數많은 勞動者에 대하여 選別을 可能케해 준다는 것등으로 들고[7] 이러한 機能을 가진 勞動市場이 競爭的이며 彈力的일 수 있도록 하는 方法은 보다 나은 情報의 提供과 公共職業安定機構의 強化에 있다고 하였다.[8] 그리므로 어떤 社會의 勞動市場을 올바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그 社會에서 職業安定機關의 役割의 檢討되어야 한다.

넷째는 賃金構造로서 勞動市場이 勞動力의 去來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바로 그 去來의 結果 決定되어지는 價格이 賃金이므로 賃金構造에 대한 分析은 勞動市場論을 마무리하는 意味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勞動組合의 勞動市場에 대한 영향이다. 즉 勞動組合의 組織形態가 產業別이냐 企業別이냐 또는 勞動組合의 交涉力이 使用者에 대하여 어느 程度나 強하느냐에 따라 廢鎖的인 勞動市場에만 規制力이 發揮되느냐 아니면 勞動市場이 產業別로 統一되어 넓은 範圍까지 勞組의 規制力이 行使되느냐 등등 勞動市場의 樣相이 달라지므로 勞動組合과 勞動市場과의 관련도 硏究의 對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韓國勞動市場分析의 對象

지금까지 우리는 勞動市場의 分析을 위하여 考慮될 수 있는 여러가지의 接近方法을 理論的으로 檢討하여 보았으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側面을 指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시아的 過剩人口를 가진 開發途上國을 念頭에 두긴 하였으나 多分히 一般論的인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들이 韓國의 勞動市場構造를 分析코자 할 때에는 資料의 不

(7) L.G. Reynolds,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4th ed., 1964, pp. 16-17.
(8) L.G. Reynolds, *Ibid.*, pp. 380-381.

備등으로 실제로 그와같은 部面을 모두 分析의 對象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거니와 반드시 그렇게 할 必要도 없다. 各國의 經濟構造나 勞動市場의 全體的인 特殊性에 따라 重要한 側面이 各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우리들이 韓國의 勞動市場構造를 分析코자 할 때에도 韓國의 經濟構造나 勞動市場의 事情에 비추어 가장 重要하면서도 適切하다고 생각되는 分析의 對象을 앞서와 같은 여러가지 側面 가운데에서 抽出할 必要가 있다. 本稿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順序에 따라 韓國勞動市場의 構造를 把握해 보고자 試圖하였다.

첫째 韓國勞動力의 存在樣態와 就業構造, 둘째 失業 및 不定全就業構造, 셋째 女子 및 少年勞動등에서 여러가지 角度로 勞動市場의 現況과 그 特性을 考察토록 하였다.

다음에는 넷째로 韓國勞動市場의 需要構造에서 韓國資本의 蓄積過程, 蓄積의 程度, 產業 및 工業構造 그리고 勞動政策과 技術革新등이 勞動市場에서의 勞動需要에 어떠한 作用을 하였는가를 分析토록 하였다.

다섯째로는 韓國勞動市場의 供給構造로서 勞動市場의 內外에서 供給에 영향을 미치는 諸般要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勞動移動의 特徵과 일곱째로는 職業安定機構와 그 機能등을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이 밖에도 賃金構造라든지 勞動組合의 勞動市場에 대한 영향 등도 마땅히 分析의 對象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本稿에서는 上記의 各 項目에서 可及的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따로 章으로 두지는 않았다.

III. 韓國勞動力의 存在樣態와 就業構造

1. 生產年齡人口, 經濟活動人口 및 經濟活動參加率

韓國의 勞動市場을 規制하는 各種要因은 앞으로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할 것이거니와 이때 가장 먼저 檢討되어야 될 것으로서는 勞動力이 存在하고 있는 樣態와 그 就業의 構造라고 생각된다. 經濟企劃院의 人口統計 및 經濟活動人口調査에 의하여 勞動力의 狀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人口趨勢는 표 Ⅲ-1과 같다. 그리고 14歲以上인 生產年齡人口, 經濟活動人口 및 就業者등이 표 Ⅲ-2에 나타나 있다. 우선 生產年令人口를 보면 1963年은 全體人口에 比하여 약 58% 정도이고 1970年은 약 56%정도로서 生產年令人口가 대체로 過半을

<표 Ⅲ-1> 全 國 人 口 趨 勢 단위 : 1,000명

	센 서 스 人 口	推 計 人 口
1960	24,989	
1961		25,402
1962		26,125
1963		26,868
1964		27,631
1965		28,377
1966	29,193	
1967		29,784
1968		30,469
1969		31,139
1970		31,793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71. 3.

<표 Ⅲ-2>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經濟活動參加率 및 就業率

단위 {1,000명 / %

	生產年齡人口 (14歲 이상 人口) A	經濟活動人口 B	就 業 者 C	經濟活動參加率 B/A	就 業 率 C/B
1963 평균	15,685	8,653	7,947	55.2	91.8
1964 〃	16,348	8,893	8,210	54.4	92.3
1965 〃	16,591	9,199	8,522	55.4	92.6
1966 〃	16,840	9,325	8,659	55.4	92.9
1967 〃	17,169	9,504	8,914	55.4	93.8
1968 〃	17,433	9,757	9,261	56.0	94.9
1969 〃	17,579	9,818	9,347	55.9	95.2
1970 〃	17,936	10,020	9,574	55.9	95.5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69 및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71. 3.

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生產年令人口에 대한 經濟活動人口 即 勞動力의 比率이 經濟活動參加率로 表示되어 있는바 表에는 대체로 55 乃至 56%로 지난 8年間 微增을 나타내고 있다.

生產年令人口에서 非經活動人口인 不勞所得者, 其他등을 뺀 經濟活動人口의 比率인 이 經濟活動參加率은 勞動力의 規模를 規定해주는 것으로서 第1次的으로 注目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人口의 크기 다음으로 이 經濟活動參加率이 勞動力의 크기를 左右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47年에 57.3%, 1962年에 57.4%인 美國에 比하여는 약간 낮은 편이나 東南亞諸國에 比하면 현저히 높은 편이다. 即 대만은 1959年에 同率이 32.0%, 1965年에 29.7%로서 30% 內外이며 필리핀은 1960年에 31.5%, 1965年에 35.3

%, 1967年에 41.5%이고 印度는 1961年에 同率이 43.0%였다.(9)

우리나라의 經濟活動參加率은 外見上 극히 적은 上昇外에는 거의 不變이지만 그 內容은 반드시 單純한 것은 아니다. 1960年代初 以來 急速한 工業化와 더불어 農業部門의 人口가 都市로 크게 移動함으로써 特히 女子 및 高齡層이 非經濟活動人口化되었을 可能性이 크고 敎育熱의 上昇 등으로 就學者의 比率도 늘었을 것으로 推測되는데도 不拘하고 經濟活動參加率이 줄지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은 다소 의아스럽기 조차 하다. 그러나 그러한 事情은 經濟活動人口를 農家, 非農家別, 그리고 男女 및 年令階級別로 考察하면 어느 정도 밝혀진다. 첫째 農家 女子의 經濟活動參加率이 1963年의 40.9%에서 1969年의 46.5%로 크게 增加하였고 둘째 역시 農家의 高齡層에서 男女 共히 同率이 크게 上昇하였다. 즉 60~64歲 階級에서 1963年과 1969年을 對比할때 男子는 67.0%에서 71.4%로, 女子는 21.6%에서 35.0%로 上昇하였으며 65歲以上에서는 男子는 28.3%에서 39.8%로, 女子는 7.5%에서 13.2%로 크게 上昇하였다. 그 反面 非農家에서는 同期間中 60~64歲 階級에서 男子는 45.6%에서 51.7%로 上昇하였지만 女子는 14.0%에서 10.0%로 低下하였고 65歲以上에서는 男子의 경우 21.4%에서 18.4%로 下落하였고 女子는 4.5%에서 5.4%로 上昇하였다. 따라서 同期間中 經濟活動參加率에 큰 變化가 없고 오히려 微增現象을 나타낸 것은 農家의 女子와 高齡層男女의 同率이 크게 上昇한것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으며 農村에 있어서 農繁期에 勞動力不足現象의 一面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季節別로 보더라도 非農家는 1969年의 各季節에 약 51%內外로 거의 變動이 없었는데 대하여 農家는 6月에는 무려 75.8%로 높고 12月에는 44.2%로 낮아 農繁期의 勞動力事情을 짐작케 한다.

2. 就業率 및 產業別 就業者構成

그리고 就業率은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1963年의 91.8%에서 1970年의 95.5%로 꾸준히 增加하여 왔다. 이러한 就業率의 增加現象은 물론 그동안의 經濟成長의 結果 就業機會가 늘어난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지만 높은 就業率自體에도 相當한 問題가 있다.

우선 1週間中 收入이나 利益이 있는 일에 單 1시간이라도 從事한 사람은 就業者로 調査되었기 때문에 一定한 職業을 가지고 相當한 勞動時間 동안 勞動을 하며 거기서 얻는 所得으로 家族을 扶養하는 通念上의 就業과는 거리가 멀다. 事實은 嚴然한 失業者이면서도 糊口를 위하여 不規則的으로 잠시 勞動을 하여도 就業者로 看做되므로 그 率이 높다는 것은 항상 그와같은 制約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同就業率은 그나마 農家와 非農家로 區分하여 볼때 農家는 약 97~98%로 높은 反面 非農家는 90%內外이다. 우리나라의 產業

(9)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67 및 1968.

別 就業者構成比가 표 Ⅲ-3과 같이 1970年에 農林水產業이 50.5%, 鑛工業이 14.3%이고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써비스業이 35.2%임을 생각하면 低所得과 짧은 勞動時間등 不完全就業의 內容을 많이 包容하고 있는 農業과 써비스業등의 比重이 크게 占하게되어 높은 就業率의 意義를 減殺시키고 있다. 失業 및 不完全就業構造에 대하여는 後에 다시 考察하게 된다.

產業別 就業者의 構成比는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3年平均으로 農林水產業이

<표 III.-3> 產業別就業者 및 그 構成比

단위 { 1,000명 / %

	全產業	農林水產業			鑛 工 業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써비스業					
		計	農林業	어업및수렵	計	광업및채석업	제조업	計	건설업	전기가스업	상 업	운수업	써비스업
1963년 평균	7,947 (100.0)	5,022 (63.2)	4,822 (60.7)	200 (2.5)	689 (8.7)	58 (0.7)	631 (7.9)	2,236 (28.1)	200 (2.5)	25 (0.3)	785 (9.9)	117 (1.5)	1,109 (14.0)
1964 〃	8,210 (100.0)	5,084 (61.9)	4,906 (59.8)	178 (2.1)	726 (8.8)	55 (0.7)	671 (8.1)	2,400 (29.1)	191 (2.3)	14 (0.2)	863 (10.5)	162 (2.0)	1,170 (14.3)
1965 〃	8,522 (100.0)	5,000 (58.7)	4,785 (56.2)	215 (2.5)	879 (10.3)	79 (0.9)	800 (9.4)	2,643 (31.0)	246 (2.9)	19 (0.2)	977 (11.5)	204 (2.4)	1,197 (14.0)
1966 〃	8,659 (100.0)	5,013 (57.9)	4,826 (55.7)	187 (2.2)	940 (10.9)	83 (0.9)	857 (9.9)	2,706 (31.2)	213 (2.5)	22 (0.2)	979 (11.3)	180 (2.1)	1,312 (15.2)
1967 〃	8,914 (100.0)	4,924 (55.2)	4,706 (52.8)	218 (2.4)	1,138 (12.8)	95 (1.1)	1,043 (11.7)	2,852 (32.0)	264 (3.0)	28 (0.3)	1,100 (12.3)	192 (2.2)	1,268 (14.2)
1968 〃	9,261 (100.0)	4,863 (52.5)	4,643 (50.1)	220 (2.4)	1,295 (14.0)	114 (1.2)	1,181 (12.8)	3,103 (33.5)	317 (3.4)	23 (0.2)	1,211 (13.1)	234 (2.5)	1,318 (14.3)
1969 〃	9,347 (100.0)	4,798 (51.3)	4,660 (49.9)	138 (1.5)	1,335 (14.3)	113 (1.2)	1,222 (13.1)	3,214 (34.4)	333 (3.6)	28 (0.3)	1,194 (12.8)	273 (2.9)	1,386 (14.7)
1970 〃	9,574 (100.0)	4,834 (50.5)	4,745 (49.6)	89 (0.9)	1,369 (14.3)	109 (1.1)	1,260 (13.2)	3,371 (35.2)	279 (2.9)	25 (0.3)	1,190 (12.4)	343 (3.6)	1,534 (16.0)

자료 : 표 Ⅲ-2와 같음.

63.2%, 鑛工業이 8.7%,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써비스業이 28.1%에서 1970年에는 各各 50.5%, 14.3% 및 35.2%로 變化하였다. 農林水產業은 工業化와 함께 每年 크게 減少해 왔으며 鑛工業部門就業者는 鑛業 및 製造業이 다같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社會間接資本도 建設業, 商業 및 運輸業등의 增加에 힘입어 7.1%포인트나 增加하였다. 結局 그동안의 工業化過程에서 傳統的 產業部門인 農林水產業部門의 勞動力이 相對的으로는 물론 絶對數에 있어서도 크게 줄어든 反面 鑛工業部門은 顯著히, 그리고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써비스業部門도 相當히 늘어 勞動力의 都市·農村間의 移動이 相當히 大規模로 이루어진 것을 推測케 한다.

이 가운데 특히 鑛工業部門에 대하여는 鑛工業센서스에 의하여 그 變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Ⅲ-4에 의하면 鑛工業部門의 從業員數는 急激히 增加하여 1960年을 100으로 할 때 鑛工業總計는 1968年에 指數가 259이며 鑛業은 197, 製造業은 272이다. 즉 鑛業에 比하여 製造業從業員의 增加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1968年의 鑛工業 從業員數를 規模別로 보면 鑛工業總計로는 825,810名인데[10] 500名 以上의 規模에 全體從業員數의 32.6%, 200～499名 規模에 14.9%가 從事하여 200名 以上規模가 47.5%를 占하며 49名未滿規模는 33.7%를 占하고 있다. 鑛業部門은 大體로 大規模 事業體의 比重이 커서 500名以上規模가 46.1%, 200～499名 規模가 18.0%로서 200名以上의 그것은 64.1%라는 높은 比重을 나타내고 있으며 49名 未滿規模는 23.4%를 占하여 비교적 낮다. 製造業部門은 500名 以上規模에 31.3%, 200～499名 規模에 14.6%로서 200名以上의 規模에 從事하는 從業員數는 製造業全體의 45.9%이고 49名 未滿規模에는 34.9%가 從事하여 相對的으로 中小 및 零細企業의 比重이 높은 편이다.

<표 Ⅲ-4> 鑛 工 業 從 業 員 數 단위 : 명

	鑛業 및 製造業總計	鑛 業	製 造 業
1958	297,720(94)	37,293(94)	260,427(95)
1960	315,054(100)	39,800(100)	275,254(100)
1963	462,068(147)	60,087(153)	401,981(146)
1966	613,179(195)	64,514(162)	566,665(206)
1967	719,421(228)	70,610(177)	648,811(236)
1968	825,810(262)	77,503(195)	748,307(272)

자료 :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 보고서, 기본통계편』 1968, pp.28-30.

<표 Ⅲ-5> 規模別鑛工業從業員數(1968) 단위 : 명

	鑛業 및 製造業總計	鑛 業	製 造 業
5～9명	90,390(10.9)	4,701(6.1)	85,689(11.5)
10～19	84,879(10.3)	5,574(7.2)	79,305(10.6)
20～49	103,475(12.5)	7,842(10.1)	95,633(12.8)
50～99	75,622(9.2)	4,949(6.4)	70,673(9.4)
100～199	78,433(9.5)	4,827(6.2)	73,606(9.8)
200～499	123,441(14.9)	13,916(18.0)	109,525(14.6)
500명 이상	269,570(32.6)	35,694(46.1)	233,876(31.3)
총 계	825,810(100.0)	77,503(100.0)	748,307(100.0)

자료 : 표 Ⅲ-4와 같음, pp.84～86.

(10) 鑛工業센서스報告書에서는 從業員 5人以上의 事業體만을 對象으로 하였고 前述한 바와같이 就業者는 社會的通念上의 從業者와는 顯隔한 거리가 있으므로 表 Ⅲ-3의 1968年度 就業者와는 크게 差異가 있다.

3. 職業別 就業者의 構成

다음에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 就業者로 나타난 勞動力의 職業別分布를 보면 표 Ⅲ-6과 같다.

職業別로는 農林伐木 및 類似職業從事者가 1970年 基準으로 볼 때 47.9%로 가장 比重이 크고 다음이 製造業部門을 主로하는 技能工, 生産工程單純勞務者로서 16.5%이며 그다음이 販賣職의 12.8%, 써비스職業 6.5%, 事務職 5.9% 등의 順이다. 이러한 職業別 就業者構成의 變動狀況을 보면 역시 農林水産業系統의 就業者가 減少되어 왔으며 그밖에는

<표 Ⅲ-6> 職 業 別 就 業 者 단위 : {1,000명 / %

	취업자총수	전문적 기술적 직업종사자	관리적 직업 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벌목및 유사종사자
1963년 평균	7,947(100)	196(2.5)	60(0.8)	276(3.5)	799(10.1)	4,802(60.4)
1964 〃	8,210(100)	172(2.1)	59(0.7)	308(3.8)	894(10,9)	4,329(52.7)
1965 〃	8,522(100)	174(2.0)	66(0.8)	340(4.0)	1,015(11.9)	4,774(56.1)
1966 〃	8,659(100)	199(2.3)	66(0.8)	407(4.7)	1,015(11.7)	4,842(55.9)
1967 〃	8,914(100)	247(2.8)	76(0.9)	412(4.6)	1,124(12.6)	4,686(52.6)
1968 〃	9,261(100)	260(2.9)	98(1.1)	409(4.4)	1,244(13.4)	4,614(49.8)
1969 〃	9,347(100)	332(3.6)	88(0.9)	479(5.1)	1,226(13.1)	4,626(49.5)
1970 〃	9,574(100)	358(3.7)	95(1.0)	566(5.9)	1,177(12.3)	4,593(48.0)

	어업및수렵업 종사자	광부및채석업 종사자	교통및체신업 종사자	기능공, 생산공정 단순노무자	써비스직업 종사자	분류불능 또는 미상
1963년 평균	203(2.5)	48(0.6)	117(1.5)	1,021(12.8)	425(5.3)	—
1964 〃	733(8.9)	50(0.6)	147(1.8)	1,023(12.5)	495(6.0)	—
1965 〃	212(2.5)	77(0.9)	180(2.1)	1,126(13.2)	558(6.5)	—
1966 〃	187(2.2)	76(0.9)	121(1.4)	1,251(14.4)	495(5.7)	—
1967 〃	222(2.5)	77(0.9)	122(1.4)	1,456(16.2)	492(5.5)	—
1968 〃	236(2.5)	90(1.0)	145(1.6)	1,601(17.3)	564(6.1)	—
1969 〃	133(1.4)	94(1.0)	211(2.3)	1,627(17.4)	531(5.7)	—
1970 〃	222(2.3)	83(0.9)	274(2.9)	1,581(16.5)	625(6.5)	—

자료 : 표 Ⅱ-2와 같음.

<표 Ⅲ-7> 1963년 대비 직업별 취업자의 증가율(1970년) 단위 : {1,000명 / %

	전문적 기술적 직업 종사자	관리적 직업 종사자	사무적 직업 종사자	판매 직업 종사자	농림 벌목업및 유사 종사자	어업및 수렵업 종사자	광부 채석업 종사자	교통 체신업 종사자	기능공, 생산공정 및 단순 노무자	서어비 스 업 종사자
증가수	162	35	290	378	△209	19	35	157	560	200
증가율	82.7	58.3	105.1	47.3	△4.4	9.4	72.9	134.1	54.8	47.1

자료 : 표 Ⅱ-6에서 작성.

대체로 增加하여 왔다. 비교적 두드러지게 增加한 職業은 工業化에 直接으로 영향을 받는 技能工, 生産工程單純勞務者이다. 이 職業就業者의 變動이 社會經濟的으로는 가장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其他의 職業에 있어서는 增加率로서는 表 Ⅲ-7에 나타난 바와같이 交通通信業從事者, 事務的職業從事者, 專門的技術的職業從事者 등의 그것이 餘他에 比하여 높다.

4. 從事上의 地位別 就業者構成

우리나라의 就業者를 그 從事하고 있는 地位에 따라서 보면 몇가지의 特性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선 各年度別 就業者의 從事上地位別構成을 보면 표 Ⅲ-8과 같다.

<표 Ⅲ-8> 從事上의 地位別 就業者

단위 : {1,000명 / %

	總數	自營業主	家族從事者	常雇	臨雇	日雇	분류미상
全國							
1963년 평균	7,947(100.0)	2,952(37.1)	2,496(31.4)	975(12.3)	515(6.5)	1,007(12.7)	2
1965 〃	8,522(100.0)	3,129(36.7)	2,662(31.2)	1,140(13.4)	707(8.3)	884(10.4)	—
1967 〃	8,914(100.0)	3,225(36.2)	2,556(28.7)	1,532(17.2)	628(7.0)	973(10.9)	—
1969 〃	9,347(100.0)	3,248(3.48)	2,546(27.2)	2,014(21.5)	519(5.6)	1,020(10.9)	—
1970 〃	9,574(100.0)	3,271(34.2)	2,585(27.1)	2,195(22.9)	511(5.3)	1,012(10.5)	—
農林水產業							
1963 〃	5,022(100.0)	2,021(40.0)	2,251(45.0)	66(1.3)	145(2.9)	537(10.7)	2
1965 〃	5,000(100.0)	1,976(39.5)	2,321(46.4)	74(1.4)	198(4.0)	431(8.6)	—
1967 〃	4,924(100.0)	2,006(40.7)	2,200(44.7)	93(1.9)	166(3.4)	459(9.3)	—
1969 〃	4,798(100.0)	1,970(41.1)	2,107(43.9)	167(3.5)	84(1.8)	470(9.8)	—
1970 〃	4,834(100.0)	1,913(39.6)	2,191(45.3)	150(3.1)	46(1.0)	534(11.0)	—
鑛工業							
1963 〃	689(100.0)	168(24.3)	62(9.0)	228(33.1)	136(19.7)	95(13.8)	—
1965 〃	879(100.0)	214(24.3)	82(9.3)	306(34.8)	176(20.0)	101(11.5)	—
1967 〃	1,138(100.0)	234(20.6)	107(9.4)	468(41.1)	227(19.9)	102(9.0)	—
1969 〃	1,335(100.0)	270(20.2)	107(8.0)	661(49.5)	189(14.2)	108(8.1)	—
1970 〃	1,369(100.0)	291(21.6)	97(7.1)	653(47.7)	218(15.9)	105(7.7)	—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써비스業							
1963 〃	2,236(100.0)	763(34.1)	183(8.2)	681(30.5)	234(10.5)	375(16.8)	—
1964 〃	2,643(100.0)	939(35.5)	259(9.8)	760(28.8)	333(12.6)	352(13.3)	—
1967 〃	2,852(100.0)	985(34.5)	249(8.7)	971(34.0)	235(8.2)	412(14.4)	—
1969 〃	3,214(100.0)	1,008(31.4)	332(10.3)	1,186(36.9)	246(7.7)	442(13.8)	—
1970 〃	3,371(100.0)	1,062(31.5)	297(8.8)	1,392(41.3)	247(7.3)	373(11.1)	—

자료 : 표 Ⅲ-2와 같음.

우리나라는 産業構造上 아직도 農林水產業이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製造業에 있어서도 中小企業이 事業體數에 있어서는 壓倒的으로 많으며 其他의 서비스業에서도 零細業體가 많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從事上地位別 就業者의 構成은 先進諸國의 그것과 현저한 差異가 있다. 表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自營業主가 34% 以上을 占하고 있으며 家族從事者도 27% 以上을 나타내어 우리나라 就業構造의 前近代性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이에 反하여 常雇, 臨時雇 및 日雇를 포함한 雇傭勞動者의 數는 1970年에 38.7%를 차지할 뿐이다.

이러한 就業者의 構成도 1960年代를 통하여 크게 改善된 結果이며 過去에는 이보다 더욱 落後된 構成을 보여주고 있었다. 即 自營業主의 構成比는 1963年에 37.1%이던 것이 1970年에 34.2%로 계속 떨어져 왔으며 家族從事者도 1963年의 31.4%에서 1970年의 27.1%로 下落하였다. 그리고 工業化와 더불어 가장 典型的인 勞動者라고 할 수 있는 常雇는 1963年의 12.3%에서 1970年에는 22.9%로 그 比重도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1963年에는 1百萬을 下廻하는 975千名이었으나 1970年에는 2倍를 훨씬 超過하여 2,195千名으로 急增하였다. 勞動時間이나 支給받는 賃金水準으로 보아 臨時雇와 日雇가 약간 줄어들긴 하였으나 특히 日雇가 아직도 10%以上을 차지하고 있어 勞動市場의 條件이 勞動者에게 상당히 不利한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從事上의 地位別 就業者의 構成을 農林水產業, 鑛工業 및 社會間接資本과 其他 써비스業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農林水產業部門에 있어서는 舊態依然한 營農方式이 그대로 反映되어 從事上地位別 就業構成上에 거의 별다른 變化를 찾아 보기 어렵다.

둘째 鑛工業部門에 있어서는 從事上의 地位別 就業者의 構造가 近代化되고 있는 것이 比較的 뚜렷하게 나타나는바 自營業主의 構成比는 1963年과 1970年을 비교할 때 24.3%에서 21.6%로 減少하였고 家族從事者도 9.0%에서 7.1%로 減少하였다. 反面 常雇就業者는 33.1%에서 47.7%로 크게 增加하였으며 臨時雇와 日雇는 相當히 減少하였다. 우리나라 鑛工業部門의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의 比重이 農林水產業部門에 比하여 相當히 낮은 것이 하나의 두드러진 現象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日本과 비교만 하더라도 아직도 相當히 落後的인 것을 알 수 있다. 勿論 國民經濟의 構造에 따라서 產業部門別 就業者나 就業者의 從事者地位別構成이 同一한 패턴일 수는 없다. 그러나 1967년의 日本과 비교해 볼 때[11] 日本의 農林業에서는 自營業主의 比重이 약 40%, 家族從事者가 56% 그리고 雇

(11) 隅谷三喜男, 『勞働經濟論』 1969, p. 103.

<표 Ⅲ-9> 日本의 從事上地位別 就業者

단위 : 1,000명 / %

	就業者計	自營業主	家族從事者	雇傭者
1955	41,190(100.0)	10,460(24.6)	13,850(34.0)	16,900(41.3)
1958	43,240(100.0)	10,310(23.9)	12,410(28.7)	20,500(47.5)
1961	45,180(100.0)	10,120(22.2)	11,200(24.9)	23,770(52.8)
1964	46,730(100.0)	9,750(21.0)	10,250(22.0)	26,680(56.9)
1967	49,220(100.0)	9,680(19.7)	8,800(17.9)	30,710(62.4)
1968	50,020(100.0)	9,840(19.7)	8,660(17.3)	31,480(62.9)
1969.6	51,710(100.0)	10,280(19.9)	9,430(18.2)	31,960(61.8)
(比前年增減率)	3.4	4.5	8.9	1.5

자료 : (1) 1955~1964년분은 總理府統計局, 「勞動力調査」.
(2) 1967~1969년분은 「日本統計月報」 1970년 1월호.

傭者 3%이며 非農林業에서는 그 比重이 15%, 9% 및 76%임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就業者構造도 대체로 이러한 方向으로 움직여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構造는 아직도 相當히 落後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써비스系에서는 대체로 鑛工業部門과 비슷한 改善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程度는 鑛工業에 比하여 緩慢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就業者總數의 從事上地位別 構成을 日本을 위시하여 臺灣, 필리핀 그리고 印度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9를 보면 日本은 前述한 바와 같이 自營業主와 家族從事者의 比率이 낮고 雇傭者의 比率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勿論 歐美先進諸國의 경우와 比較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的인 過剩人口型諸國과 比較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日本도 1955年의 構成比와 최근의 것을 비교해보면 그동안 끊임없이 近代的인 構造로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東南亞諸國과 比較하여 보면 우선 臺灣은 1966년 7月現在 就業者總 3,940千名中 業主가 2.4%, 自營業者가 28.1% 無給家族從事者가 24.3% 雇傭者合計 45.2%로서 雇傭者는 民間雇傭者 30.7%와 政府雇傭者 14.5%로 되어 있다.[12] 이렇게 보면 臺灣은 自營業者(業主包含)와 家族從事者에 있어서는 韓國보다 그 構成比가 약간 낮고 雇傭者에 있어서는 韓國보다도 多少 그 比率이 높다.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는 1960年度에 自營業主가 經濟活動人口에서 占하는 比重이 46.0%, 無給家族從事者가 24.7%, 雇傭者 29.2%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13] 이와같은 現象을 觀察할 때 產業全般에 걸쳐 필리핀은 韓國의 就業者

(12) 東畑精一監修, 隅谷三喜男編, 『前揭書』, p. 125.
(13) 東畑精一監修, 隅谷三喜男編, 『前揭書』, p. 128.

構成보다도 相當히 落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韓國의 從事上地位別 就業構造는 한편에 있어 先進諸國에 比하여 自營業主나 家族從事者가 많아서 雇傭勞動力으로 轉換될 수 있는 源泉이 많다고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產業構造의 後進性 때문에 全體就業者中 雇傭者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낮아서 그 轉換 및 近代的 勞動市場에의 滲入이라는 立場에서는 그다지 有利하지 못한 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臺灣이라든지 필리핀과 같은 東南亞諸國과 比較해 볼 때에도 臺灣보다도 오히려 就業構造面에서는 뒤떨어지고 있으며 다만 필리핀이나 印度보다는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失業 및 不完全就業構造

勞動市場에 있어서 失業 및 不完全就業의 規模 乃至 存在樣式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一般商品의 價格決定에 있어서 超過供給이 市場價格을 下落시키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勞動市場에서 典型的인 供給超過分으로 看做될 수 있는 失業 및 不完全就業勞動力의 存在가 賃金水準을 下落시키고 其他 雇傭中의 勞動者의 勞動條件의 向上에 沮止的 役割을 할 것은 當然하기 때문이다. 失業 및 不完全就業者는 勞動市場의 外郭에서 間接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勞動市場內에서 就業中인 勞動者와 똑 같이 競爭하고 있는 存在이다. 그러므로 失業 및 不完全就業者의 存在樣式이 結果的으로 어떤 國民經濟의 勞動市場構造를 端的으로 示顯한다고도 할 수 있다. 例컨대 우리나라와 같이 相對的 過剩人口國에서 失業 및 不完全就業者의 規模가 莫大하고 그들이 또한 先進諸國에 있어서와 같은 景氣的 失業者가 아니고 소위 慢性的인 構造的인 失業者 및 不完全就業者임을 밝히는 것을 通하여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構造를 端的으로 把握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1. 失業構造

우리나라 失業者에 대한 統計는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 行하고 있다.

그러나 이 統計는 調査期間인 1週間中 단 한시간이라도 所得이 發生하는 일에 從事한 사람은 就業者로 看做하고 「經濟活動을 할 수 있는 能力과 意思를 가지면서도 調査期間中 全然 收入이 있는 일에 從事하지 못하고 求職活動을 하고 있는 者와, 日氣不順, 待期, 一時的 病, 求職斷念, 其他事由로 求職活動을 실제로 하지 못한 者」를 失業者로 定義하고

있어서 社會通念上의 失業者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1週間中 단 한시간이라도 就業한것은 失業者에서 除外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失業 保險制度도 없고 勤勞者의 賃金水準이 全般的으로 매우 낮은 곳에서는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아무리 不規則的이고 아무리 低賃金이라도 어떤 形態로든 조금이라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狀態下에서는 비록 完全失業者를 把握하기 위한 調査라 할지라도 그것을 先進諸國의 完全失業者와 같은 意味를 가지는 것으로 결코 對比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온전한 失業者라면 그러한 調査에서는 就業者에 包含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意味의 完全失業者는 失業者의 極端的인 경우를 나타낼 뿐 하등 失業者 그 自體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때문에 本稿에서는 失業이라는 語義에 좇아 完全失業者에 대하여 간단히 살핀후 不完全就業者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形態의 勞動者 即 短時間勞動者, 所得就業轉職 및 追加就業希望 등으로 파악되는 勞動者에 대하여 考察고자 한다.

<표 Ⅳ-1> 完全失業者 및 失業率

단위 : {1,000명 / %

구분 / 년월	전국 계	전국 남	전국 여	농가 계	농가 남	농가 여	비농가 계	비농가 남	비농가 여
1963년(A V.)	706 (8.1)	488 (8.7)	218 (7.2)	152 (3.1)	111 (3.3)	41 (2.1)	554 (16.4)	377 (16.5)	177 (16.3)
1964 〃	683 (7.7)	512 (10.5)	171 (5.6)	186 (3.4)	143 (4.2)	43 (2.2)	497 (14.4)	369 (15.5)	128 (11.9)
1965 〃	677 (7.4)	502 (8.4)	175 (5.5)	167 (3.1)	132 (3.8)	35 (1.8)	510 (13.5)	370 (14.5)	140 (11.5)
1966 〃	666 (7.1)	496 (8.1)	170 (5.4)	168 (3.1)	134 (3.9)	34 (1.7)	498 (12.8)	362 (13.3)	136 (11.5)
1967 〃	590 (6.2)	410 (6.6)	180 (5.4)	124 (2.3)	87 (2.7)	37 (1.8)	466 (11.1)	323 (10.8)	14ℰ (11.1)
1968 〃	496 (5.1)	349 (5.6)	147 (4.2)	100 (1.9)	66 (2.1)	34 (1.6)	396 (8.9)	283 (9.3)	113 (8.1)
1969 〃	471 (4.8)	320 (5.1)	151 (4.3)	113 (2.2)	81 (2.6)	32 (1.5)	358 (7.8)	239 (7.5)	119 (8.4)
1970 〃	446 (4.5)			80 (1.6)			366 (7.5)		
1970년 전년대비 증감	△25 (△0.3)			△33 (△0.6)			8 (△0.3)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69 및 『한국통계월보』(1971年 3月號).

우선 表 Ⅳ-1에 의하여 完全失業者의 數와 失業率을 보면 數는 1963年의 706千名에서 1970年에는 446千名으로 크게 減少하였으며 이것과 經濟活動人口와의 對比인 失業率도 역시 8.1%에서 4.5%로 每年 減少하여왔다. 그리고 이를 農家口와 非農家口로 나누어 보면

前者에서 1970年에 80千名으로 1.6%, 後者에서는 366千名으로 7.5%로서 農家口에 比하여 非農家口의 失業率이 1963年의 16.4%에서 7.5%에로 크게 減少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매우 높다. 우리나라 勞動者의 就業經路가 農村出身 勞動者가 直接農村에서 主로 鑛工業에 就業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立地라든지 就業機會에의 接近可能性등을 생각할 때 都市를 經由하여 都市의 遊休勞動力이 보다 많이 就業할 수 있다고 한다면 表 Ⅳ-1에 나타난 非農家口의 높은 完全失業率이 오히려 勞動市場과 密接히 관련되며 아직도 極端的인 失業者라고 볼 수 있는 非農家口의 完全失業率을 통하여 劣惡한 勞動市場의 事情을 推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完全失業者의 年令別構成을 表 Ⅳ-2에서 보면 대체로 30歲未滿의 年少層에 集中的인 現象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1969年을 보면 19歲未滿이 22.7%이며 24歲未

<표 Ⅳ-2> 完全失業者의 年令別構成比 단위 : %

區分 / 年齡 / 性別	1963年 平均			1965年 平均			1967年 平均			1969年 平均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4—19	23.3	17.8	35.3	24.7	18.5	42.3	30.5	22.4	48.9	22.7	19.1	30.5
20—24	20.0	17.2	26.2	22.0	17.3	35.4	21.7	17.1	32.3	24.2	20.9	31.9
25—29	15.4	18.5	8.7	14.6	18.3	4.0	16.5	19.3	10.0	18.7	19.7	16.6
30—34	8.5	9.0	7.3	7.8	9.2	4.0	7.3	9.3	2.8	11.1	13.1	6.6
35—39	8.6	8.6	8.8	7.4	8.3	4.6	5.1	6.8	1.1	7.7	7.8	7.3
40—44	8.6	9.4	6.9	5.8	6.6	3.4	5.4	7.3	1.1	4.0	4.7	2.6
45—49	5.8	7.4	2.3	6.5	8.0	2.3	6.1	3.8	2.2	3.6	4.7	1.3
50—54	4.8	6.2	1.8	5.8	6.8	2.8	4.4	5.9	1.1	4.7	5.6	2.6
55—59	3.0	3.9	0.9	4.1	5.4	0.6	2.4	3.4	—	2.3	3.5	—
60—64	1.3	1.4	0.9	0.9	1.0	0.6	0.3	0.5	—	0.6	0.6	0.7
65歲以上	0.7	0.6	0.9	0.4	0.6	—	0.3	0.2	0.6	0.4	0.3	0.7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69.

滿은 46.9%로서 거의 절반 가까운 失業者가 24歲未滿이며 30歲未滿은 전체의 65.6%나 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構成比는 年齡이 높아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1963, 1965, 1967年을 보아도 大同小異하다.

다음에 完全失業者를 失業以前 産業別로 본 것이 表 Ⅳ-3이다.

完全失業者는 먼저 失業以前에 어떤 産業部門에 就業하고 있었던 比率이 1969年의 경우 34%이며 過去에 그러한 事實이 없었던 사람이 63%, 未詳 3%로 되어 있다. 이를 1963年 및 1966年과 對比해 볼 때 그동안 以前産業을 가졌던 完全失業者의 比率이 계속 下落해 왔

<표 Ⅳ-3> 失業前產業別完全失業者 단위 : 1,000名

	總數	前產業				前產業없음	分類不能또는未詳
		計	農林水產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및기타써비스業		
1963년 평균	706(100)	327(46.5)	69(9.7)	70(9.9)	188(26.9)	379(53.5)	—
1964 〃	683	326	69	66	191	357	—
1965 〃	677	277	55	58	164	400	—
1966 〃	666(100)	231(34.3)	63(9.4)	45(6.7)	123(18.2)	435(65.7)	—
1967 〃	590	235	40	59	136	355	—
1968 〃	496	203	37	51	115	293	—
1969 〃	471(100)	160(34.0)	29(6.1)	56(11.9)	75(16.0)	296(63.0)	15(3.1)

자료 : 表 Ⅳ-2와 같음.

음을 알수가 있다. 그것은 高度成長期인 1960年代에 걸쳐서 完全失業者의 數가 減少되는 過程에서 過去 就業의 經驗이 있는 失業者가 雇傭擴大時에 優先的으로 就業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失業前에 就業했던 失業者의 以前就業의 內容을 보면 1969年의 경우 農林水產業이 6.1%, 鑛工業이 11.9%,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써비스業이 16.0%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 以前年度에도 대체로 비슷한 樣相으로서 우리나라의 失業勞動力이 都市의 第3次產業部門에 크게 停滯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重要한 事實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表에 의하면 農林水產業과 鑛工業部門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比率을 보이고 있는바 대체로 源泉的으로 農村에서 離農脫農등의 形態로 出發된 遊休勞動力이 都市에 移住하여 第3次產業部門에 寄生하면서 就業機會를 求하고 있으며 그 때 第3次產業部門의 不安定的인 就業事情 때문에 以前產業으로 현지히 높은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極端的인 失業者로서의, 소위 hard core로서의 失業者인 完全失業者는 每年 漸減狀態에 있기는 하나 非農家口에서는 아직도 높고 最近에는 減少趨勢가 鈍化되고 있으며 年齡層으로서는 30歲未滿이 매우 높은 比重을 占하고 있고 以前產業別로서는 第3次產業部門이 相當히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不完全就業構造

完全失業者의 槪念은 前述한 바와같이 失業의 極端的인 경우만 包含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當然히 그와같은 의미의 失業은 아니면서, 即 就業을 하고 있기는 하면서도 完全한 就業이라고 하기 어려운 不完全就業에 대하여 살펴 볼 必要가 있겠다.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不完全就業者의 位置는 그들이 完全失業者의 位置에 比하여 약간

의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本質的으로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不完全就業者는「不完全」의 範圍를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把握하지 않는 限 失業의 範疇에 넣어도 그다지 無理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들이 勞動市場과의 關聯에서 不完全就業者를 볼 적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不完全就業을 實際로 把握하는 問題는 完全失業의 경우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完全한 就業에 대하여 果然 어느정도 未達되는 것을 不完全就業으로 보아야될 것인가는 多分히 恣意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程度의 問題를 잠깐 考慮外에 두면 몇가지의 基準에 따라서 不完全就業을 把握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就業과 失業의 差異는 일을 하고 있느냐 놀고 있느냐 또는 收入이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라고 할 수 있으므로 所得 乃至 收入이나 就業時間이 各各 基準이 될 수 있겠다.

人間이 勞動을 하는 目的이 生活에 必要한 所得 또는 收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就業이 所得 또는 收入面에서 完全한가 또는 不完全한가는 가장 重要한 問題라 할것이다. 따라서 所得 또는 收入은 不完全就業을 把握하기 위하여 一應 그 基準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現實의 勞動者의 報酬를 볼때 비록 正常的인 就業者의 勞動時間과 같은 勞動을 하는 就業者가운데 平均的인 所得에 比하여 현저히 낮은 所得을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勞動의 質的差異를 認定하는 限 低所得을 不完全就業의 基準으로 삼는다는 데에는 相當한 無理를 각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問題를 또 다시 다른 角度에서 보아 現行의 賃金體系 그 自體까지도 問題로 삼아서 低所得이 相對的인 過剩人口 때문에 人爲的으로 생긴 것으로 본다면 低所得을 곧 不完全就業으로 看做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農業部門이나 中小零細企業에 있어서 個人業主나 그 家族從事者들은 就業은 하고 있으되 所得의 面에서는 전혀 不完全한 就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立場에서는 低所得을 不完全就業의 基準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基準으로 不完全就業者를 客觀的으로 計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問題는 남는다고 하겠다.

다음에 就業時間을 基準으로 삼는 問題는 어떤 勞動者가 社會的 通念上의 充分한 時間 또는 就業者의 平均勞動時보다 一定한 比率以下로 勞動하는 것을 不完全就業으로 把握하는 것이다. 이것은 就業者들이 모두 充分한 時間 勞動하기를 願한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이러한 就業時間基準은 客觀的인 計測이 比較的 容易하다.

그리고 이 밖에도 經濟企劃院에서 調査한 바 있는 轉職希望 乃至 追加業希望의 基準이라든지 季節別 就業者數의 差異등으로 間接的으로 不完全就業의 樣相을 推測해 볼 수도 있

다.

所得 乃至 收入基準으로 不完全就業을 把握하는 方法은 大體的으로 그러한 基準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많은 部分의 就業者가 不完全就業狀態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얼마만큼이라고 確然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就業時間基準은 經濟活動人口調査의 就業時間別 就業者에 의하여 接近할 수가 있다. 表 Ⅳ-4에는 就業時間別 就業者와 週平均就業時間이 나와 있다. 就業時間에 의하여 不完全就業을 把握할 때에는 社會的으로 通用되는 就業時間의 2/3에 該當하는 時間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 普通인데 여기서는 週當平均就業時間을 그와같은 通常的 時間으로 보면 그의 2/3는 1969年의 경우 33.6時間이 된다. 이것과 가장 가까운 就業時間境界는 34時間[14]이므로 34時間未滿을 一旦 不完全就業者로 看做할 수 있다. 表에는 34時間未滿이 1969年의 경우 1,637千名으로 全體業者의 17.5%에 이르고 있으며 1968年에도 2,069千名과 全體의 약 22.4%라는 많은 數와 높은 比重임을 나타내고 있다. 1963年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많아서 2,141千名으로 무려 26.9%에 이르렀던 것이다.

<표 Ⅳ-4> 就業時間別 就業者 단위 : 1,000명

年 月	總 數	1~17 (1~18)	18~26 (19~29)	27~35 (30~34)	36~44 (35~39)	45~53 (40~49)	54時間시간이상 (50시간이상)	分類不能 또는未詳	週平均就業時間
1963年 平均	7,947	693	906	542	579	1,606	3,615	6	47.5
1964 〃	8,210	763	998	582	614	1,619	3,634	—	46.0
1965 〃	8,522	671	1,040	540	609	1,727	3,935	—	48.0
1966 〃	8,659	760	1,032	583	612	1,807	3,865	—	47.7
1967 〃	8,914	632	952	572	715	1,930	4,113	—	48.3
1968 〃	9,261	505	945	619	671	2,136	4,385	—	49.2
1969 〃	9,347	320	642	675	1,917	2,060	3,715	18	50.3
1969. 3	8,555	475	954	707	622	2,165	3,632	—	48.1
6	10,733	138	487	591	2,551	2,062	4,904	—	53.8
9	10,166	366	674	866	2,570	2,089	3,554	47	49.4
12	7,934	302	452	534	1,926	1,924	2.770	26	49.0

자료 : 표 Ⅳ-2와 같음.

주 : 1963년부터 1969년 2/4分期까지는 괄호내의 시간.

다음에 前述한 바와같이 季節別 就業者數의 差異를 通하여서도 不完全就業 即 主로 季節的 失業面의 不完全就業現象을 把握할 수가 있다.

表Ⅳ-4에 의하면 1969年의 경우 就業者數가 가장 많은 6月과 가장 적은 12月과의 就業

(14) 1969年 3/4分期부터는 就業時間階級이 34時間未滿은 35時間未滿으로 되어 약간의 差異가 있음. 表 IV-4의 註 參照.

者數의 差異는 2,799千名이다. 그러나 이러한 數字는 產業別로 6月과 12月의 繁閑이 相反되는 경우도 있는 결과 相殺된 部分이 있어서 表 Ⅳ-5에 보면 全體로서 6月과 12月의 差약 2.8百萬名은 實은 農林水產業의 農繁期가 6月임에 대하여 鑛工業 및 社會間接資本·其他써비스業은 12月에 產業活動이 더 活潑하여 그때의 就業者數가 더 많은 것인데도 서로 相殺되고 있다. 따라서 季節別 就業者의 差를 不完全就業者라고 만약 본다면 實은 3者를 合친 4,928千名에 이르러 약 5百萬名 가량이 季節的 失業이란 意味의 不完全就業者임을 알 수 있다.

<표 Ⅳ-5> 產業別 季節別 就業者數 단위 : 1,000名

	總數	農林水產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및其他 써비스業
1969年 平均	9,347	4,798	1,335	3,214
3月	8,555	4,056	1,338	3,161
6月	10,733	6,714	1,164	2,855
9月	10,166	5,566	1,305	3,295
12月	7,934	2,845	1,534	3,546
6月—12月	2,799	3,869	△370	△689

자료 : 표 Ⅳ-2와 같음.

이러한 莫大한 數字의 不完全한 就業者는 그 數가 많다는 問題外에도 우리나라의 失業 및 不完全就業이란 것이 先進產業社會에서 찾아볼 수 있는 景氣變動的인 失業 乃至 不完全就業이 아니고 多分히 構造的인 것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 大部分을 차지하는 農林水產部門의 不完全就業者도 極히 낮은 農業技術의 바탕 위에서 甚하게 나타나는 繁閑의 差와 相對的 過剩人口의 所產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短時間 就業, 低所得就業의 表裏關係를 이루는 것이다. 다음에 鑛工業에 있어서도 1969年 平均 就業者의 약 28%가 季節的 失業的인 不完全就業者라는 것은 雇傭中의 勞動者에게도 소위 定着性(Commitment)이 弱한 問題가 있을 뿐 아니라 供給의 非彈力性이라는 後進的인 要因으로 雇傭外의 勞動者들에게 就業機會의 提供이라는 面에서 매우 弱한 基盤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밖에도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지금은 中斷하였지만 數年前까지도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人口調査時에 調査한 바 있는 소위 就業意識面에서 轉職 또는 追加就業希望者에 의한 不完全就業者推定의 方法도 있다.

表 Ⅳ-6에 의하면 1963—67年 期間中 總就業者의 平均 24.5% 以上의 많은 就業者가 轉職 또는 追加就業을 希望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1967年의 경우 1,825千名이나 된다. 1963—65年間에 追加就業希望者數에 比하여 1966—67年間의 轉職 및 追加就業希望者를 合친

<표 Ⅳ-6> 就業時間別 轉職 및 追加就業希望者 단위 : {1,000名 %

年度	就業者總數	計	1~18時間	19~29時間	30~34時間	35~39時間	40~49時間	50時間以上	非希望者
1963	7,949	1,878 (23.6)	216 (31.1)	263 (29.0)	168 (31.1)	164 (28.3)	357 (22.2)	708 (19.6)	6,068
1964	8,210	1,995 (23.7)	173 (22.1)	235 (23.5)	141 (24.2)	139 (22.6)	356 (22.0)	916 (25.2)	6,251
1965	8,522	2,080 (24.4)	176 (26.2)	264 (25.4)	165 (30.6)	165 (27.1)	417 (24.1)	893 (22.7)	6,440
1966	8,659	2,524 (29.1)	284 (37.4)	370 (35.9)	228 (39.1)	181 (29.6)	479 (26.5)	982 (25.4)	6,135
1967	8,914	1,825 (20.5)	152 (24.1)	233 (24.5)	168 (29.4)	156 (21.8)	362 (18.8)	756 (18.4)	7,076

자료 : 경제기획원『經濟活動人口調査』, 1963—67.

주 : 1) ( )안은 該當就業時間別就業者로서 轉職 및 追加就業希望者를 나눈것.

2) 1963—65年까지는 追加就業希望者만이며 1966—67年은 轉職 및 追加就業希望者의 合計임.

것이 그다지 크지 않은 理由는 勿論 이들이 大體로 減少趨勢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前者에 있어서는 追加就業希望만을 質疑한데 反하여 後者에서는 兩者中 擇一할 수 있게 質疑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67年의 경우 轉職希望者와 追加就業希望者數는 各各 914千名과 911千名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이들 轉職 및 追加就業希望者들은 就業時間別로 볼 때 短時間就業者가 追加就業을 希望할 蓋然性이 더욱 큰 것이 그대로 反映되어 大體로 그 希望率이 높으나 더욱 意味있는 것은 就業時間이 相當히 많은 階層에서의 希望率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事實이다. 이것도 역시 低所得就業 또는 不安定하고 勞動條件이 좋지 않는 곳에서 많은 就業者들이 就業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지금까지 就業時間으로나 季節的인 就業者의 變動으로나 또는 轉職 및 追加就業希望率로 보나 어떠한 基準에서 보든지 간에 우리들이 不完全就業으로 把握할 수 있는 勞動者의 數는 매우 많으며 이들이 단순히 一時的인 不景氣下에서의 失業 또는 不完全就業이 아니고 慢性的으로 完全한 就業機會를 發見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賃金이나 勞動條件이 劣惡하고 不安定的인 곳에 就業하고 있는 構造的 失業的인 勞動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失業 및 不完全就業者가 아직도 尨大하게 存在하는 條件 위에서의 勞動市場은 依然히 buyer's market 的인 要素가 支配的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오늘날의 低賃金, 長時間勞動 등의 劣惡한 勞動條件, 높은 勞動移動率 등을 規定한다고 할 수 있다.

V. 女子 및 少年勞動

1. 女子勞動

女子와 少年勞動者는 어떠한 社會에 있어서나 거의 例外없이 一般勞動者와는 區別하여 保護를 받도록 勞動關係法에서 規定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現行 勤勞基準法에는 第5章을 「女子와 少年」에 대한 14個條文으로 構成시켜 여러가지 制約을 規定하고 있다.

女子 및 少年勞動은 대부분 餘他의 勞動者에 比하여 不利한 몇가지의 條件을 갖고 있다. 이들은 우선 技術水準에 있어서 이렇다 할 訓練을 받지 못한 未熟練勞動者들이다. 또한 이들은 家計를 全的으로 責任지는 것이 아니거나 單身者들로서 家計補充의 形式으로 就業하고 있다. 따라서 이밖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勞動力過剩의 環境과 함께 그들은 勞動市場에서 劣惡한 勞動條件과 極度의 低賃金에 휘몰릴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勞動力이다.

資本은 그의 必要에 따라 언제나 性別, 年齡別, 學歷別 등으로 人爲的인 差別化에 의하여 賃金의 低下를 劃策하므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市場去來上 劣勢에 있는 이들 女子 및 少年勞動은 資本에 賃金差別化를 위한 好對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설사 그들이 成人男子와 同一量의 勞動을 할 때라도 다만 女子이기 때문에 또는 少年이기 때문에 成人男子의 切半 또는 그 以下의 賃金을 強要받기 일쑤다. 成人男子勞動者의 경우 事業體의 規模가 커질수록, 또는 勤續年數가 길수록 賃金上昇이 顯著하게 나타나지만 女子 및 少年勞動者의 경우는 대체로 그와같은 現象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成人男子의 경우처럼 明白하거나 比例的이지 못하다. 지금부터 檢討하는 統計에서도 이러한 女子 및 少年勞動의 特性은 比較的 明確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女子의 經濟活動人口부터 보면 表 V-1과 같다. 女子의 經濟活動參加率은 대개 38% 정도이나 年齡別로는 1969年의 경우 20~24歲階級이 50.1%로 높고 또한 40~49歲階級도 약 44%로서 높아 대체로 生產比率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25~34歲階級을 前後

<표 V-1> 女子經濟活動人口 단위 : 1,000名

	生產年令人口(14歲以上人口)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失業者	非經濟活動人口	經濟活動參加率(%)	就業率(%)	失業率
1965	8,756	3,198	3,023	175	5,558	36.5	94.5	5.5
1968	9,269	3,541	3,394	147	5,728	38.2	95.8	4.2
1970	9,424	3,626	3,522	104	5,798	38.4	97.1	2.9

자료 : 경제 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71. 3., p. 29.

하여 M字型으로 높다. 그리고 農家와 非農家로 區分하여 보아도 1969年에 農家女子는 經濟活動參加率이 46.5%임에 比하여 非農家의 그것은 29.2%에 不過하다.

女子勞動者의 就業率은 男子勞動者의 就業率보다 오히려 높은데 이는 女子의 경우 就業者가 아닐 사람은 當初부터 家事從事者등으로 非經濟活動人口에 포함될 可能性이 크고 또한 農家에서의 同參加率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農家의 女子勞動者의 就業率은 1965年에서 1970年까지 계속 98%를 上廻하고 있으며 非農家에서는 1965~67年間은 88%를 上廻하는 水準이었으나 점차 上昇하여 1970年에는 94.8%까지 上昇하였다.

다음에 女子勞動者의 職業別 就業構成을 보면 역시 農村에서 農業勞動力으로 利用되는 것이 壓倒的이어서 1970年의 경우 總就業者 3,522千名 가운데 약 56%인 1,961千名이 農林業에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이 販賣業이고 技能工, 生產工程 및 單純勞務者인 生產從業員과 써비스業從事者 등의 順으로 되어있다.(표 Ⅴ-2 參照)(15)

<표 Ⅴ-2> 職 業 別 就 業 者(女子) 단위 : 1,000名

年 月	취업자 총계	전문적 기술적 업적 종사자	관리적 업적 종사자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벌목 및 유사 종사자	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	광업 및 채석업 종사자	교통 및 통신업 종사자	기능공 생산공정 및 단순 노무자	써비스업 종사자	분류 불능 또는 미상
1965	3,023	35	8	34	473	1,869	61	2	12	267	262	—
1968	3,394	58	1	62	558	1,934	53	8	6	443	271	—
1970	3,522	82	1	77	503	1,961	83	12	24	418	361	—

자료 : 표 Ⅴ-1과 같음, pp. 30-31.

이번에는 勞動廳의 調査와 韓國銀行의 賃金調査를 土臺로 女子勞動者의 雇傭構造와 賃金構造를 봄으로써 女子勞動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을 抽出해 보고자 한다.

表 Ⅴ-3은 1969年 4月末現在로 女子勞動者의 產業別, 規模別就業狀況을 10人以上을 雇傭하는 事業體를 對象으로 調査한 것이다. 이 表는 10人以下事業體에 從事하는 勞動者가 包含되지 못하였고 零細農耕이 거의 全部인 農業部門에 대하여는 大部分의 女子勞動者가 누락되는 制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雇傭分布는 파악할 수 있는바 우선 總數에 있어서는 카버되는 약 271千名의 勞動者中 製造業部門이 224千名으로 약 83%를 占하며 다음이 써비스業의 18千名으로 약 6.7%, 運輸保管業의 15千名으로 약 5.7% 등이다.

(15)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 나타나는 經濟活動人口 또는 就業者는 그 槪念이 어떤 勞動者가 하나의 職業으로서 積極的으로 就業하고 있는 것과는 相當한 거리가 있고 就業者도 1週日間에 單한 시간이라도 所得이 發生하는 일에 參加한 것은 就業者로 看做되는 등 그 勞動者들을 모두 여기서 보고자 하는 女子勞動者問題의 對象으로 하기에는 困難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經濟活動人口 및 就業者들은 그와 같은 槪念上의 制約을 念頭에 두면서 女子勞動力의 範圍를 理解하는데 使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Ⅴ-3> 産業別·規模別 女子勤勞者數 단위 : 名

	總 數	10~15人	16~29人	30~49人	50~99人	100~199人	200~499人	500人以上
總 數	271,365 (100.0)	9,774 (3.6)	16,396 (6.0)	21,624 (8.0)	30,383 (11.2)	39,310 (14.5)	56,961 (21.0)	96,917 (35.7)
農林漁業	422 (0.2)	37	66	141	62	60	56	—
鑛 業	1,953 (0.7)	39	80	133	202	197	585	717
製造業	224,274 (82.7)	6,784	11,509	14,926	22,658	30,643	45,732	92,022
建設業	1,208 (0.4)	134	133	84	227	170	100	360
전기,가스,수도써비스	414 (0.2)	6	9	15	71	137	168	8
商 業	9,472 (3.5)	425	1,210	2,539	2,333	822	956	1,187
運輸保管業	15,431 (5.7)	84	317	635	1,491	5,081	6,736	1,087
써비스業	18,191 (6.7)	2,265	3,072	3,151	3,339	2,200	2,628	1,536

자료 : 노동청,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69, pp. 12~13.

또한 總女子勞動者의 規模別 雇傭事情을 보면 規模가 큰 事業體에 集中되어 있는 정도가 높아서 500人以上 事業體에 약 36%인 97千名, 200~499人規模에 약 21%인 57千名으로 소위 大企業部門에 全體의 약 57%가 雇傭되어 있으며 100~199人規模에 약 14%인 39千名, 50~99人規模에 약 11%인 30千名이 雇傭되어 있다. 女子勞動者가 大企業體에 많이 雇傭되어 있는 理由는 大部分 製造業의 纖維를 비롯한 몇개의 部門의 大企業體에 企業當 數千名씩 女子勞動者가 就業하고 있는 것에 基因한다. 그 例로서는 500人 以上의 97千名中 92千名이 製造業部門勞動者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에 韓國銀行의 賃金基本調査報告書[16]를 利用하여 鑛工部門 女子勞動者의 學歷別, 年齡別, 勤續年數別, 從業員種類別, 從業員數와 各種 區分에 의한 給與額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女子勞動者의 學歷別構成은 表 Ⅴ-4에서와 같이 鑛工業全體인 약 179千名中 國卒이 63.1%의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中卒이 25.9%이며 高卒 10.2%, 大卒 0.8%로서 中卒以下가 거의 90%를 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生產從業員과 事務·其他 從業員으로 나누어 볼 때 女子는 역시 90% 以上이 生產職에 종사하며 生產職은 이를 다시 常傭從業員과 臨時從業員으로 나누면 生產職

(16) 1967年 6月 30日 基準으로 調査하였으며 調査對象産業은 鑛業, 製造業 및 電氣業이고 製造業은 從業員 5人以上의 事業體, 鑛業은 10人以上의 事業體를 對象으로 하였음.

<표 Ⅴ-4> 繊工業女子從業員의 種類, 雇傭形態, 學歷, 年齡, 勤續年數, 月間實務日數, 月間實勞動時間數, 給與額및 從業員數

	年齡(歲)	勤續年數(年)	實勞動日數(日)	實勞動時間數(時間)	月間給與額 計(1,000원)	月間給與額 定額給與額(1,000원)	月間給與額 超過給與額(1,000원)	年間特別給與額(1,000원)	從業員數 實數	從業員數 %
全體	22.8	2.1	24.6	217	4.5	3.9	0.6	2.8	178,864	100.0
國卒	23.0	2.1	24.1	212	3.9	3.5	0.4	1.7	112,822	63.1
中卒	21.8	1.9	25.3	226	4.8	4.1	0.7	3.5	46,299	25.9
高卒	23.3	2.2	26.2	226	6.8	5.9	0.9	6.6	18,301	10.2
大卒	26.7	2.9	25.9	216	11.7	10.8	0.9	10.2	1,443	0.8
生產從業員	22.7	2.0	24.4	216	4.3	3.7	0.6	2.3	162,307	90.7
中卒以下	22.7	2.0	24.3	215	4.2	3.6	0.6	2.2	153,728	85.9
高卒以上	23.0	2.0	26.1	227	6.4	5.0	1.4	4.9	8,580	4.8
常傭從業員	22.7	2.2	25.0	222	4.5	3.9	0.6	2.8	134,406	75.1
臨時從業員	22.8	1.4	21.9	192	3.3	2.9	0.4	0.5	27,901	15.6
事務, 其他從業員	23.6	2.3	26.4	227	6.8	6.2	0.6	7.0	16,557	9.3
中卒以下	22.8	2.1	26.6	231	4.3	3.9	0.4	3.5	5,393	3.0
高卒以上	24.0	2.1	26.3	224	7.8	7.3	0.5	8.6	11,164	6.2

자료 : 한국은행, 『賃金基本調査報告』 1967, p. 51.
주 : 纖業의 女子從業員은 3,086名 임.

內部的으로는 약 75% 가량이 常傭雇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調査는 賃金調査에 主限이 주어져 있고 臨時雇는 이러한 調査와 같이 1個月間을 對象으로 한 것에서는 充分히 把握되기 어려우며 女子勞動者의 常傭雇 對臨時雇의 比率은 이 調査와는 달리 臨時雇의 比率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女子勞動者의 年令은 全體平均은 22.8歲이나 學歷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勤續年數는 學歷에 크게 관계없이 대체로 2年前後로서 平均的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것은 大部分의 女子勞動者가 婚前에 就業했다가 結婚과 함께 就業을 그만두는 것은 臨時雇등 不安定한 雇傭事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月間實勞動日數는 대개 25日前後이며 月間實勞動時間數도 큰 差異가 없이 220시간 內外로서 1日當 平均 8.8時間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長時間 勞動이 女子勞動者에게는 보편적이다. 學歷別 賃金狀況을 보면 學歷에 따라 賃金에 약간씩의 差異가 있으며 月間給與額에서 보다 年間特別給與額에 差異가 더 많다. 그리고 生產職과 事務職을 比較해보면 全體平均으로는 生產職에 比하여 事務職이 약 60%나 더 높은 賃金을 받고 있는데 그中에서도 中卒以下 勞動者間에는 別로 差異가 없고 高卒以上 勞動者間에서 그와같은 差異가 發生하고 있다.

女子勞動者의 年令別 構成을 表 Ⅴ-5에서 보면 가장 많은 年令階級은 20~24歲로서 全

體勞動者의 50.6%를 占하며 그다음이 17~19歲로서 24.2%, 25~29歲의 12.3%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29歲未滿의 女子勞動者가 全體의 90.2%를 차지한다. 女子勞動者의 就業이 家計補充的이라는 것은 前述한 짧은 勤續期間과 이러한 年令構造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女子勞動者가 勞動市場에 長期的으로 定着하지 못하는 理由는 勞動者와 使用者의 兩側事情에 緣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女子勞動者는 結婚, 生產 其他 社會的 慣習등으로 스스로 勞動參加에 消極的이며 使用者 역시 結婚과 同時에 解雇시킨다든지 또는 臨時工形式으로 採用을 하고 長期勤續을 願하거나 장려하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뿐아니라 根本的으로 女子勞動力이 大部分 未熟練勞動으로서 극히 短期間의 訓練으로 代替가 可能하므로 勤續을 바랄 根據가 적다는 것도 그 理由 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V-5> 鑛工業 從業員의 種類, 性 및 年齡階層別 勤續年數, 月間 및 年間給與額

	勤續年數 (年)	月間給與額 計 (1,000원)	月間給與額 定額給與額 (1,000원)	年間特別給與額 (1,000원)	從業員數 實數 (名)	從業員數 %
全從業員	2.9	8.3	7.4	6.4	617,544	
生產從業員	2.7	7.1	6.2	4.4	509,564	
事務, 其他從業員	3.9	13.9	12.7	15.5	107,980	
男子從業員	3.2	9.8	8.7	7.8	438,680	
生產從業員	3.0	8.4	7.3	5.3	347,257	
事務, 其他從業員	4.1	15.1	13.7	16.9	91,423	
女子從業員	2.1	4.5	3.9	2.8	178,864	100.0
—16歲	0.7	2.2	2.1	0.3	5,565	3.1
17—19	1.0	3.2	2.8	1.2	43,308	24.2
20—24	2.0	4.6	4.0	2.8	90,558	50.6
25—29	3.4	6.4	5.5	5.1	21,848	12.2
30—34	3.2	6.1	5.4	4.4	7,173	4.0
35—44	3.9	5.6	5.1	4.1	8,057	4.5
45—54	5.2	4.9	4.5	3.0	2,168	1.2
55歲以上	2.0	2.8	2.6	—	187	0.1

자료 : 표 V-4와 같음, pp.296-7.

年令別 賃金을 보면 16歲未滿은 月間 2.2千원, 17~19歲는 3.2千, 20~24歲는 4.6千원등으로 全體의 約 78%가량이 月間 5千원을 下廻하는 賃金을 받고 있다. 그리고 賃金額은 女子의 경우는 年功序列型的인 體系도 아니어서 年令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25~29歲 階級에서 平均 6.4千원으로 頂點을 이루고는 오히려 下落하여 45~54歲는 4.9千원, 55歲以上은 2.8千원으로 되고 있다.

<표 V-6> 鑛工業 女子從事員의 種類, 學歷 및 勤續年數別 月間現金給與總額

단위 : {1,000원 / 名

	勤續年數計		1年未滿		1~2年		3~9年		10~19年		20年以上	
	給與額	從業員數	給與額	從業員數	給與額	從業員數	給與額	從業員數	給與額	從業員數	給與額	從業員數
男女全從業員	8.3	617,544	5.2	122,370	7.1	238,445	10.3	226,207	15.3	27,524	14.5	2,998
男子從業員	9.8	438,680	6.2	77,752	8.4	158,040	11.6	174,819	15.9	25,373	15.1	2,695
女子從業員	4.5	178,864 (100.0)	3.4	44,618 (24.9)	4.3	80,405 (45.0)	5.7	51,387 (28.7)	7.8	2,150 (1.2)	4.8	303 (0.2)
國卒	3.9	112,822	3.1	30,729	3.7	48,368	4.9	31,669	6.3	1,752	4.8	303
中卒	4.8	46,299	3.7	10,787	4.5	21,972	5.9	13,291	10.5	248	—	—
高卒	6.8	18,301	4.9	2,993	6.4	9,459	8.1	5,815	18.5	94	—	—
大卒	11.7	1,443	9.6	169	9.2	606	14.1	612	18.6	57	—	—
生產從業員	4.3	162,307	3.3	41,973	4.1	72,121	5.3	46,087	6.8	1,823	4.8	303
事務, 其他從業員	6.8	16,557	4.4	2,645	6.0	8,284	8.8	5,300	11.8	327	—	—

자료 : 표 V-4와 같음.

그리고 鑛工業 女子從業員의 勤續年數는 表 V-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表도 前述한 바와같이 不斷히 움직이고 있는 많은 數의 婦女勞動層 乃至 臨時工들을 正確하게 反映하지 못한 與件下에서 調査된 것이지만 그래도 女子勞動者의 勤續年數가 短期인 것은 相當히 잘 表示되고 있다.

女子從業員 179千名中 勤續年數가 1年未滿의 數가 24.9%, 1~2年이 44.9%로서 2年未滿의 比가 約 70%에 이르고 있으며 3~9年이 28.7%이고 10年以上은 1.5%에 不過하다. 그리고 이들의 賃金은 勤續年數가 길다고 해서 男子의 경우처럼 그렇게 上昇하지 못하며 特히 大部分인 中卒未滿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다음에는 끝으로 女子勞動者들의 年齡階層과 賃金階層別로 從業員이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가를 보자. 表 V-7에 의하여 우선 賃金階層別 從業員數를 보면 3千원未滿階層에 全體의 24.7%, 3~5千원階層에 36.2%, 5~6千원 階層에 15.6%로서 6千원 未滿階層에 全體의 76.5%가 分布되어 있다. 그리고 月間 10千원 以上을 받는 女子勞動者는 전체의 單 4%에 不過하여 低賃金의 實相을 如實히 말해주고 있다. 이를 年令階層別로 보더라도 20歲未滿은 거의 大部分이 5千원 未滿의 賃金을 받고 있으며 女子勞動者의 過半을 占하고 있는 20~24歲階層도 그 中 약 57%가 5千원未滿의 賃金을 받으며 약 76%가 6千원未滿의 賃金을 받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長時間 勞動과 劣惡한 作業環境 등을 考慮에 넣을 때 悲慘한 低賃金이며 우리나라 企業이 그 存立條件을 지나친 賃金收奪에 두고 있는 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Ⅴ-7> 鑛工業女子年齡階層別 및 賃金階層別 從業員數 단위 : 名

賃金階層	年齡計	~16歲	17~19	20~24	25~29	30~34	35~44	45~54	55歲以上
女子從業員	178,864 (100.0)	5,565	43,308	90,558	21,848	7,173	8,057	2,168	187
~2999원	44,228 (24.7)	3,880	18,404	17,057	1,574	1,018	1,280	922	93
3000~4999	64,836 (36.2)	1,589	18,314	35,047	5,025	1,748	2,657	361	94
5000~5999	27,876 (15.6)	96	3,904	17,012	4,433	851	1,256	324	—
6000~6999	15,487 (8.7)	—	1,657	8,878	2,507	1,490	924	31	—
7000~7999	9,690 (5.4)	—	559	5,680	2,205	522	550	173	—
8000~8999	5,744 (3.2)	—	264	3,061	1,696	345	271	108	—
9000~9999	3,933 (2.2)	—	107	1,826	1,375	230	343	50	—
10,000~11,999	3,519 (2.0)	—	62	1,307	1,475	268	334	73	—
12,000~13,999	1,897 (1.1)	—	37	349	1,005	352	154	—	—
14,000~15,999	790 (0.4)	—	—	225	257	116	96	96	—
16,000~17,999	293 (0.2)	—	—	68	161	28	36	—	—
18,000~19,999	206 (0.1)	—	—	22	110	58	16	—	—
20,000~24,999	230 (0.1)	—	—	26	25	96	82	—	—
25,000~29,996	77 (—)	—	—	—	—	50	10	17	—
30,000~39,999	59 (—)	—	—	—	—	—	46	13	—
40,000원以上	—	—	—	—	—	—	—	—	—

자료 : 표 Ⅴ-4와 같음, p. 375.

2. 少年勞動

少年勞動은 女子勞動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勞動者 스스로의 身體的 精神的인 弱體 또는 未成熟이라든지 使用者側의 勞動差別化政策에 따른 劣惡한 勞動條件의 強要外에도 國家社會의 將來를 擔當해나갈 年齡層이란 의미에서 法에 의하여 特別히 保護를 받고 있다. 韓國의 勤勞基準法이 女子와 少年에 대한 保護를 規定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같다.

少年勞動者는 同法에 의하면 18歲未滿의 勞動者를 가르키며 이 18歲未滿者에 대하여는

女子勞動者에 대한 것과는 다른 特別한 保護措置 등을[17] 規定하고 있으므로 女子勞動者라도 18歲未滿者는 少年勞動에 包括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少年勞動은 國民所得의 全般的인 低水準과 低賃金때문에 國民學校卒業者 또는 中高等學校卒業者 등이 生計補助를 위하여 多數 就業을 해야될 事情에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少年勞動에 대하여 法이 保護를 規定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使用者에게 대하여 勞動時間延長과 賃金收奪의 好對象으로 되어있어 相當히 많은 數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統計로서는 우리나라의 少年勞動에 대한 實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鑛工業센서스에서는 勞動者의 年令에 대한 調査가 없고 利用할 수 있는 것은 1967年度 報告書에 단 한번 나타나는 勞動廳의 事業體勞動實態調査報告書와 1967年 韓國銀行에서 調査한 賃金基本調査報告등에 不過하다. 前者는 從業員 50人以上 事業體가 對象이 되어 있어 中小零細企業으로서 勤勞基準法의 適用對象밖에 있는 少年勞動의 主要 就業部門이 탈락되어 있어 매우 不充分한 資料이다. 後者는 年令階層區分이 18歲未滿인 少年勞動을 考察하기에 역시 적당치 못하다. 그러나 前者를 통하여는 產業間의 大體的인 分布를, 그리고 後者를 通하여는 賃金水準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8에 의하면 從業員 50人以上 事業體에 從事하는 少年勞動者는 약 1萬名이며 이 가운데 85% 정도인 8,570名이 製造業部門에 종사하고 그 가운데에는 纖維部門이 3,685名으로 가장 많다. 表에 나타난 年令階層別, 男女別 勞動者數를 보면 少年勞動者는 16~17歲階層에 역시 가장 많고 性別로는 女子가 훨씬 더 많다. 調査對象이 常時從業員 50人以上 事業體에 限定되어 있어 農林業에 종사하는 少年勞動은 거의 완전히 除外되었으며 第3次產業部門의 就業現況도 제대로 反映되지 못한 것 같다.

다음 韓國銀行의 賃金基本調査에 나타난 少年勞動者의 數와 賃金事情을 보면 표 V-9 및 V-10과 같다.

먼저 표 V-9에 의하면 1967年 현재 從業員 5人以上의 鑛工業體의 全從業員 617,544名中 16歲未滿勞動者는 모두 11,680名이며 17~19歲는 73,789名이다. 이들의 勤續年數는 1年內外이며 月平均給與額은 16歲未滿이 2.1千원이며 17~19歲가 3.3千원이다.

그러고 표 V-10에 나타난 바로는 16歲未滿의 勞動者는 그 大部分이 3千원 未滿이고 3~5千원이 전체의 약 22%를 占하며 5~6千원은 약 3%에 不過한 低賃金이다. 또한 17~19歲勞動者의 賃金도 역시 매우 낮아 賃金階層別 從業員數를 보면 3千원未滿이 同年齡階級 全體의 약 42%, 3~5千원이 약 42%로서 5千원 未滿을 받는 勞動者가 84%나 되며 5~

(17) 勤勞基準法施行令 第43條에는 18歲未滿者의 使用禁止職種이 揭記되어 있고, 第44條에는 18歲以上의 女子使用禁止職種이 揭記되어 있는데 後者에서는 前者의 一部만을 그 範圍에 포함시킨 것을 보아도 18歲 未滿女子는 少年勞動에 包括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겠다.

<표 Ⅴ-8> 産業別女子와 少年勞動者數(근로자 50人以上事業體)

단위 : 人

	勤勞者總數				15歲未滿			16~17			18~59			60歲以上		
	總數	女子와 少年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少年	女子												
總計	443,709	155,820	10,307	145,513	528	265	263	9,779	2,324	7,455	432,973	287,473	145,500	429	416	13
農林業	3,584	140	1	139	—	—	—	1	1	—	3,580	3,441	139	3	3	—
鑛業	49,372	1,555	100	1,455	—	—	—	100	49	51	49,230	47,775	1,455	43	43	—
製造業	268,289	130,156	121,586	8,570	400	162	238	8,170	2,013	6,157	259,519	137,984	121,585	150	149	1
(纖維)	(101,409)	(75,966)	(3,685)	(72,281)	(54)	(6)	(48)	(3,631)	(471)	(3,360)	(97,701)	(25,420)	(72,281)	(23)	(23)	(—)
建設業	6,796	144	1	143	—	—	—	1	1	—	6,792	6,649	143	3	3	—
전기가스業	9,558	392	8	384	2	—	2	6	2	4	9,550	9,166	384	—	—	—
商業	15,150	3,477	342	3,135	111	97	14	231	26	105	14,890	11,755	3,135	18	18	—
운수,보관 통신業	65,710	12,732	1,227	11,505	4	1	3	1,223	183	1,040	64,420	52,915	11,505	63	63	—
써비스業	25,250	7,325	158	7,167	11	5	6	147	49	98	24,943	17,788	7,155	149	137	12

자료 : 勞動廳, 『事業體勞動實態調査報告書』 1967, pp. 134-9.

주 : 少年勞動者數는 18歲未滿의 男女勞動者數임.

<표 Ⅴ-9> 鑛工業少年勞動者의 勤續年數, 月平均給與額 및 從業員數

단위 : 年 / 1,000원 / 人

年齡階層	全從業員			男子從業員			女子從業員		
	勤續年數	月間給與額	從業員數	勤續年數	月間給與額	從業員數	勤續年數	月間給與額	從業員數
全從業員	2.9	8.3	617,544	3.2	9.8	438,680	2.1	4.5	178,864
—16歲	0.6	2.1	11,680	0.6	2.0	6,115	0.7	2.2	5,565
17—19	1.1	3.3	73,789	1.1	3.5	30,481	1.0	3.2	43,308

자료 : 표 Ⅴ-4와 같음, pp. 296-7.

<표 Ⅴ-10> 鑛工業少年勞動者의 賃金階層別 從業員數

단위 : 원 / 人

	全從業員	~2,999원	3,000~4,999	5,000~5,999	6,000~6,999	7,000~7,999	8,000~8,999	9,000~9,999	10,000~11,999	12,000~13,999
年齡計	617,544	74,843	133,836	78,608	54,017	44,032	36,672	27,034	43,987	33,775
—16歲	11,680	8,740	2,584	356	—	—	—	—	—	—
17—19	73,789	30,543	30,405	6,848	3,298	1,044	689	341	351	135

	14,000~15,999	16,000~17,999	18,000~19,999	20,000~24,999	25,000~29,999	30,000~39,999	40,000~49,999	50,000~69,999	70,000以上
年齡計	27,153	15,407	10,892	17,508	7,518	7,590	2,733	1,488	451
—16歲	—	—	—	—	—	—	—	—	—
17—19	53	20	—	33	33	—	—	—	—

자료 : 표 Ⅴ-4와 같음, p. 374.

6千원이 약 9%, 6~7千원이 약 4%이며 7千원 以上이 不過 3% 뿐이다. 이것은 勤勞基準法에서 말하는 18歲未滿勞動者만이 아니고 19歲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18歲未滿만 일 때는 이보다 오히려 낮을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少年勞動者의 數나 그들의 勞動條件 및 賃金등은 實은 이상의 資料로서는 거의 제대로 反映이 되지 않을 만큼 零細企業에 많은 勞動者가 長時間勞動과 極度로 심한 低賃金에 허덕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一定한 곳에 쉽게 定着하지 못하고 自意에 의하든지 혹은 他意에 의하여 不可避하든지 間에 빈번히 일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Ⅵ. 韓國勞動市場의 需要構造

앞에서 보아온 우리나라 勞動力의 存在樣式 및 就業構造를 비롯하여 失業 및 不完全就業構造, 女子 및 少年勞動의 樣相 등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經濟의 發展過程에서 直接

間接으로 勞動市場을 規制해온 여러가지 要因의 各種 作用의 總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크게는 勞動市場에서의 需要와 供給 即 內部的으로 兩當事者와 그 外圍로서의 諸般要因의 相互作用의 結果인 것이다.

個別的인 雇傭은 비록 個別的인 雇用主와 個別的인 勞動者間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個別的인 雇傭契約 그 自體는 결코 完全히 孤立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個別的인 雇傭主, 個別的인 勞動者는 全國民經濟的 立場에서의 全體 雇傭主와 全體 勞動者가 지닌 여러가지 屬性이나 條件에서 分離된 存在가 아니다. 그러므로 職業安定機關에서 求人을 하는 意味에서의 個別的인 雇傭主(需要者)나 求職을 하는 意味에서의 個別的인 勞動者(供給者)가 아닌 全體的인 需要者 및 供給者의 事情 또는 全體的인 需要와 供給을 直·間接으로 規定하는 要因을 考察하는 것에 의해서만 廣義의 勞動市場은 把握이 可能한 것이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立場에서 韓國勞動市場에서 需要를 規定하여온 要因을 살펴보고자 한다.

勞動에 대한 需要는 資本이다. 어떠한 勞動이 얼마만큼이나 需要되는가 하는것은 오로지 어떠한 資本이 얼마만큼의 勞動을 需要로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廣義의 勞動에 대한 需要의 規定者는 總體的 資本이며 資本이 如何히 蓄積되어왔고 따라서 如何한 性格과 內部的 構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勞動需要의 形態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勞動의 需要者로서의 韓國의 資本은 韓國資本主義의 發展過程, 換言하면 韓國經濟의 資本蓄積過程에서 어떠한 性格과 構造의 것으로 發展해 왔으며 그것이 勞動市場에서 勞動需要에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가. 本稿에서는 資本의 蓄積過程에 대하여 깊이 다룰 餘裕가 없으므로 勞動需要와 關聯하여 必要한 部分만 考察코자 한다.

우리나라의 資本主義는 周知하다 싶이 日本帝國主義의 支配下에서 生成, 發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民族資本의 形成은 여러가지의 方法에 의하여 制約되었으며 韓半島위에 建設되었던 鑛工業을 비롯한 各種產業經濟는 그나마 宗主國인 日本獨占資本主義에 隷屬된 植民地從屬型의 것이었다. 이러한 民族資本의 蓄積이 微弱한 바탕 위에서 解放과 南北分斷으로 相當한 量의 鑛工業 및 發電 등의 施設이 偏在되어 있던 北韓과 分離되었을 뿐아니라 뒤이은 6.25動亂으로 莫大한 產業施設이 破壞되었다. 그리고 1949年 및 1950年부터 實施되었던 農地改革으로 半封建的 地主小作制度를 淸算하고 農民的土地所有制를 確立시키기는 하였으나 動亂의 渦中에서 인프레 其他 政策的 失敗에 의하여 거의 唯一하게 蓄積되어온 民族資本이라고 할 수 있던 土地資本은 近代的產業資本化로 誘導되지 못하고 말았다. 1953年의 停戰後 이러한 與件속에서 1950年代의 末期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經濟는

復興 및 再建期를 맞이하였으며 이때 主로 美國의 無償援助로 提供되던 原棉, 原麥 또는 原糖등을 필두로 한 原料의 加工產業을 主로하여 援助와 外換 그리고 財政, 金融面의 特惠등에 의하여 一部의 資本家가 急速하게 資本을 蓄積하게 되었다. 이러한 形態의 資本蓄積은 國內의 部分的이며 自生的인 生產圈 및 市場圈의 段階的, 外延的擴大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진 것이 아니고 援助物資에의 排他的 接近, 加工, 販賣(獨占的利潤確保)라는 過程을 通하여 이루어졌다. 腐敗하고 無能한 政權下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特惠는 官僚와의 結託을 不可避하게 하였으며 여기에서 韓國資本은 官僚的 性格을 그 屬性으로 하기 始作한다. 또한 이와같은 資本의 官僚的性格은 1960年代를 通하여 비록 援助에서 借款으로 資本蓄積의 主된 手段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媒體의 變化外에는 本質的인 蓄積樣式에는 조금도 變化가 없었으며 오히려 더욱 深化되어 왔다. 그 뿐 아니라 援助와 外國借款을 媒介로 한 資本蓄積過程은 韓國資本으로 하여금 소위 買辦的 性格을 強하게 지니게 하였으며 部分的으로 產業利潤에 의한 蓄積으로 產業資本的인 面이 없는 것은 아니나, 主要한 屬性에 있어서 商業資本的인 것을 免치 못하게 하였다.

韓國資本의 以上과 같은 蓄積過程과 資本의 屬性은 勞動需要의 側面에서 重要한 作用을 하고 있다. 韓國의 資本이 勞動市場에서 勞動需要에 作用하는 첫째의 側面은 어떤 意味에서 量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經濟가 그 發展段階로 볼 때 아직도 後進的이고 國民總生產 또는 1人當 國民總生產이 先進 美國이나 日本에 比하여 현저히 낮은데 反하여 人口는 相對的으로 보아 많다는 意味에서도 勞動需要에 대하여 消極的 乃至 不足한 事情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가 近代的 產業社會로의 移轉에서 落後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工業化가 계속됨에 따라 이와같은 絶對的으로 經濟規模가 적다는 側面에서 오는 勞動需要의 不足問題는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점차 解消될 것이다. 오히려 問題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追求해온 工業化가 構造的인 面에서 勞動需要의 擴大에 不利하게 作用해 왔다는 것이다. 援助에 依存하거나 借款에 의하여 建設된 大企業은 大部分 그 原資材의 海外依存度가 높고 國內 關聯產業에 대한 波及效果가 극히 적어 關聯產業의 發達이 거의 不可能하거나 遲遲不振할 뿐 아니라 이들 企業들은 勞動節約的인 最新機械를 直輸入하여 運營하고 있어 一種의 經濟的 enclave 的 存在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때의 資本에 비하여 勞動市場에서의 勞動需要에 매우 不利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資本의 性格이라는 質的인 面에서 비롯된 것이면서도 結果的으로 勞動의 需要를 量的으로 制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의 側面은 產業構造 및 工業構造와 關聯되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같은 우리나라의

資本蓄積過程의 結果 우리나라의 經濟內部에는 크게 보아 落後된 生產力과 零細經營을 特徵으로 하는 前近代的인 農業部門과 近代的인 大規模企業 그리고 傳統的인 中小企業의 세 部門이 비록 큰 테두리로서는 資本主義經濟의 價値法則에 따르고 있지만 서로 相當히 다른 再生產의 패턴에 놓아서 生產活動을 營爲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問題로 삼은 近代的인 勞動市場에서 農業部門을 除外한다면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남게 되는데 이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勞動市場에서의 勞動需要 即 雇傭政策에서 相互間 多分히 異質的이다.

우리나라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表 Ⅵ-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事業體數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이 전체의 약 98%의 높은 比重을 占하고 있고 從業員數도 1963年에 比하여 1968年은 相當히 그 比重이 低下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52.4%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中小企業의 生產額 比重은 1963年에 比하여 크게 떨어져 1968年에는 35.3%를 차지하고 附加價値도 1968年에는 34.8%를 占하고 있다. 表에 의하면 1963年부터 5年동안인 1968年까지만 해도 鑛工業의 構造는 상당히 改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中小企業의 比重은 매우 높으며 흔히 二重構造로 表現되는 바와같이 近代的인 大企業에 比하여 中小企業은 狹隘한 存立基盤위에서 높은 出生率과 높은 死亡率로서 어려운 條件가운데에서 겨우 殘存하고 있다. 그리고 長時間勞動과 低賃金, 劣惡한 作業環境, 低生產性, 非合

<표 Ⅵ-1> 鑛工業의 大企業과 中小企業 단위 : 1,000원

	規模別		1963	1968
事業體數	鑛工業總計	Ⓐ	19,550	25,661
	5~199人	Ⓑ	19,253	25,034
	200 人以上	Ⓒ	297	627
	Ⓑ/Ⓐ	%	98.5	97.5
從業員數		Ⓐ	462,068	825,810
		Ⓑ	288,157	432,799
		Ⓒ	173,911	393,011
	Ⓑ/Ⓐ	%	62.3	52.4
生產額		Ⓐ	178,615,333	803,553,787
		Ⓑ	100,631,500	282,964,619
		Ⓒ	77,983,813	520,589,168
	Ⓑ/Ⓐ	%	56.4	35.3
附加價値		Ⓐ	69,887,799	325,987,961
		Ⓑ	34,754,307	113,381,020
		Ⓒ	35,133,492	212,606,941
	Ⓑ/Ⓐ	%	49.7	34.8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보고서』 1963, 1968.

理的 經營등을 그 特性으로 하고 있다. 1968年의 鑛工業센서스報告書에 의하면 鑛工業의 規模別 給與額을 規模別 從業員數로 나눈 槪略的인 平均賃金은 鑛工業全體 平均이 10,438원임에 대하여 5~9人規模의 企業平均은 6,132원, 50~99人規模는 9,276원이며 가장 規模가 큰 500人以上 企業平均은 13,249원으로 되어있다. 극히 槪略的인 것이지만 規模別賃金隔差는 이와같이 매우 크다.

따라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勞動市場에서의 勞動需要라는 面에서 볼 때 서로 差異가 매우 큰 雇傭政策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大企業은 높은 生產性과 市場에서의 獨寡占的 地位를 利用하여 獨占的 利潤을 確保하고 相對的인 高賃金을 支拂할 수 있으며 年功序列型 賃金體系下에 일단 入社한 勞動者는 相對的으로 高賃金과 良好한 厚生福利施設의 惠澤을 받으면서 대부분 終身雇傭의 形態를 取하면서 企業에 대한 忠誠을 要求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雇傭形態가 支配的인 大企業에 있어서는 勞動者는 企業內에서 昇進에 의한 縱斷的인 移動만을 경험하고 企業間 또는 他產業으로의 橫斷的인 移動은 大部分 없다. 이러한 諸般事情때문에 大企業에 있어서의 勞動市場은 매우 廢鎖的이라고 할 수 있다. 大企業에 雇傭된 勞動者는 企業內의 昇進, 賃金體系등 孤立的性格때문에 相對的 過剩人口狀態下에서 끊임없이 行해지는 勞動者相互間의 競爭에서 오는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에 反하여 中小企業은 農村과 都市의 相對的 過剩人口 即 失業者나 不完全就業者의 pool과 直接 聯結되면서 그것을 基盤으로 값싼 勞動力을 劣惡한 條件下에서 勞動을 시키므로 過剩人口에서 오는 勞動者間의 競爭이 甚하며 그 영향을 直接 받는다. 그리고 勞動者들은 潛在的 失業의 pool과 中小企業에의 就業間에 流出, 環流를 반복하므로 勞動市場이 매우 開放的이다. 中小企業勞動市場의 開放的 性格은 企業의 規模가 작을수록, 즉 零細企業일수록 그 性格이 더욱 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年齡階層으로 볼 때에는 中小企業은 多分히 低賃金에 寄生하고 있으므로 自然히 나이어린 階層에 集中되기 쉽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經濟의 二重構造가 바로 勞動市場에 영향을 미쳐 勞動市場으로 하여금 二重構成를 形成케 하고 있다고 하겠다. 農村이라는 相對的 過剩人口의 主震源地를 떠난 勞動力이 直接 大企業에 雇傭되는 경우는 未熟練者의 약간의 경우 外에는 드물고 大部分 都市에서 失業者로 있거나 소위 雜業層에 沈澱하여 糊口를 위하여 不完全한 形態로 都市의 第3次產業部門에 就業하거나 鑛工業의 中小企業에 就業하는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中小企業에 雇傭된 勞動者는 前述한 바와 같이 低賃金, 劣惡한 勞動條件 不安定性 등으로 因하여 機會만 있으면 他企業 또는 他產業으로 移動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中小企業의 勞動者들이 大企業에 本工으로 就業할 수 있는 可能性은 前述한 理由

때문에 매우 작으며 景氣變動에 따라 好況時에 臨時工으로의 就業可能性이 있을 뿐이다.

다음 韓國의 資本이 勞動市場에서 勞動需要에 作用하는 세번째의 側面은 勞動政策面의 것이다. 急速한 獨占化의 過程을 걸어온 韓國의 資本은 獨占利潤의 確保를 위하여 低賃金政策으로 一貫하여 왔다. 獨占資本은 正當한 勞動者의 寄與分에 대한 分配는 姑捨하고 物價安定의 구실 밑에 獨占商品의 價格上昇을 카바하기 위하여 오히려 賃金水準을 不斷히 抑壓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憲法과 勞動關係法에 保障된 勞動者들의 權利를 제대로 펼 수 없게도 하였다. 그 端的인 例는 外國人投資事業體에 있어서 勞動組合의 活動을 制約한 法律이라든지 혹은 勤勞監督의 不實에서 오는 勤勞基準法의 虛構化이다. 法에 保障된 勞動組合의 活動은 企業單位로는 企業家의 前近代的 思考方式이나 故意에서 오는 不斷한 不當勞動行爲에 의하여 또는 全體國民經濟單位로서는 勞動組合에 대한 規制的 政策때문에 無力化되었다.

그리고 1968年頃부터 비롯된 지나친 低賃金의 匡正의 意味밖에 없는 一時的인 名目 및 實質賃金의 急上昇에 대하여 純粹히 抑壓을 目的으로한 生產性賃金制가 使用者側 및 政策當局에서 強力히 推進되는 등 한마디로 말하여 勞動에 대한 一方的인 抑壓이 지금까지의 勞動政策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事情은 勞動市場에 있어서 逼迫을 加重시켜온 勞動需要者로서의 資本의 性格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主로 勞動需要의 條件을 規定해 준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네째로서는 약간 側面이 다르기는 하나 勞動의 需要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技術進步 또는 產業合理化에 따르는 問題가 있다. 企業의 發展은 끊임없는 技術의 進步 乃至 革新을 同伴하게 되는데 이러한 技術革新過程에서 勞動에 대한 需要에 영향을 미친다. 量的으로 소위 技術的 失業을 誘發시키는 勞動節約的인 技術革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技術革新의 結果 熟練이 分解되어 半熟練工 또는 未熟練工으로 代替시키는 소위 勞動의 稀釋化(dilution)現象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技術的으로 이러한 現象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大企業에서는 大部分 最新施設을 導入하였기 때문이며 中小企業에서는 그와 같은 技術革新이 일어날 可能性이 작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資本側面에서 이와 비슷한 效果가 期待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放慢한 經營에 대하여 企業의 內外的 條件이 더욱 惡化할 때 우리나라의 產業全般이 반드시 겪을 것으로 보이는 소위 產業合理化過程 또는 企業經營合理化過程에서 보다 徹底한 勞務管理가 追求될 것이고 그때 勞動市場에서의 勞動需要에 相當한 作用을 할것으로 보인다.

VII. 韓國勞動市場의 供給構造

우리는 앞서 II. 勞動市場論의 接近方法中 2)供給分析에서 勞動市場에 대한 供給側要因을 살펴 보았다. 그때 供給의 源泉은 勞動市場과 直接的으로 關聯된다는 의미에서 勞動市場內的인 것과, 間接的으로 關聯된다는 의미에서 勞動市場外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前者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① 勞動市場에 具體的으로 登場한 新規勞動力 ② 어떤 特定 職業 또는 產業에서 勞動力의 過剩이 發生한 結果로서 그것이 餘他部門에의 供給의 源泉이 되는 경우 ③ 過剩에서 오는 勞動移動이 아닌 의미에서의 產業間, 職業間, 地域間의 勞動力의 移動 ④ 同一企業內에서의 昇進과 같은 垂直的 移動 등을 들 수가 있었다.

이 가운데 ②와 ③의 어떤 特定產業部門에서의 勞動力 過剩에 따른 移動과 產業間, 職業間 및 地域間의 移動 등은 章을 바꾸어 다음 VIII에서 入職經路別, 前職經路別로 勞動移動의 特性을 다루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고 新規供給源泉과 垂直的 移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後者인 市場外部에서 勞動市場에 作用하는 要因으로서는 ① 農業과 農村에서의 勞動力의 流出形態 ② 都市의 過剩人口堆積問題 ③ 人口의 構造變動에 대한 分析 ④ 其他特殊問題로서 女子·少年特定部門의 技能工의 不足問題, 新規學校卒業者의 不足問題 등이 勞動市場의 事情에 따라 分析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本章에서는 勞動市場外部의 要因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農民分解, 共同體分解, 家族制度 및 價値觀念 등을 살펴보고 都市過剩人口의 堆積問題 등을 主로 考察하고자 한다.

1. 新規學校卒業者와 企業內 昇進

우리나라의 勞動力 事情은 앞서 IV. 失業 및 不完全就業構造에서 보았던 바와같이 尨大한 量의 失業 및 不完全就業人員이 存在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大部分 景氣變動的인 一時的 失業狀態 또는 一時的 不完全就業狀態가 아니고 構造的인, 慢性的인 것이었으므로 이들 亦是 大部分이 사실은 勞動市場에 대하여 항상 新規供給者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범위를 보다 좁혀서 一定한 修學後 一定水準以上의 勞動者로서 勞動市場에 전혀 처음으로 登場한다는 의미에서 中學校, 高等學校 및 大學卒業者를 新規供給者로 一旦 看做하여 그들의 進學 또는 就業狀況을 보고자 한다. 勿論 우리나라와 같이 勞動力이 아직도 過剩狀態인 곳에서 先進國에서와 같이 景氣的 乃至 摩擦的 失業外에 마치 別다른 失業者가 없는것 처럼 假想하고 新規學校卒業者를 勞動市場에 대한 新規勞動供給으로 看做한다는 데에는 많은 無理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미 失業 및 不完

<표 Ⅶ-1> 中學校卒業者의 進學狀況 단위 : 1,000名

	16歲人口數(1)			當年度卒業者			進學希望者				進學者			
	總數	男	女	總數	男	女	比率(2)	總數	男	女	比率(2)	總數	男	女
1965	531	274	257	190	123	66	82.4	156	105	51	69.1	131	85	46
1966	543	283	260	210	136	74	75.9	159	106	53	65.7	138	90	48
1967	540	280	260	217	139	78	74.9	162	107	55	70.1	152	100	52
1968	559	288	271	271	170	101	78.4	212	138	74	68.6	186	119	66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69.

주 : (1) 1965, 66, 67年의 16歲人口數는 1968年 現在의 19, 18 및 17歲人口數임.

(2) 比率은 當年度 卒業者에 대한 것임.

全就業構造에 대하여는 살펴보았으므로 가장 典型的인 新規卒業勞動力의 進路를 考察하는 것도 결코 無意味하지는 않을 것이다.

表 Ⅶ-1에 의하여 中學校卒業者의 進學狀況을 보면 1968年의 경우 當年度의 卒業者가 모두 16歲라 한다면 卒業者數는 同一年齡人口 559千名中 약 48%인 271千名이며 이 가운데에서 上級學校 進學希望者는 약 78.4%인 212千名, 실제 進學者는 68.6%인 186千名이다. 이렇게 볼 때 中學卒業者는 그 中 68.6%가 進學하고 나머지 31.4%는 勞動市場에 新規勞動力으로 登場하거나 혹은 一部는 非經濟活動人口化할 것이다. 이는 勿論 學校卒業者에 限한 것이며 同一年令人口 전체로 본다면 해당초 中學校未進學者中 一部는 이미 勞動市場에 新規勞動力으로 登場하여 就業을 하였거나 계속 求職中인 失業者도 있을 수 있다.

<표 Ⅶ-2> 高等學校 卒業者의 進路 단위 : 1,000名

	19歲人口數(1)			當年度卒業者			進學希望者			進學者		
	計	男	女	計	男	女	計	比率(2)	男	計	比率(2)	男
1965	457	247	210	116	79	37	65	56.5	45	37	32.3	25
1966	447	239	208	129	86	43	69	53.2	47	37	28.2	25
1967	447	230	217	136	91	45	68	49.7	47	42	30.8	29
1968	531	274	257	137	89	48	71	52.0	48	41	29.5	26

	就業者					無職者					其他
	計	比率(2)	男	人文系卒業	實業系卒業	計	比率(2)	男	人文系卒業	實業系卒業	
1965	29	24.9	21	12	17	26	22.1	17	12	14	24
1966	29	22.1	23	9	20	31	23.6	16	18	12	34
1967	31	23.1	24	8	23	25	18.2	12	18	7	36
1968	30	21.5	21	8	22	31	22.8	17	20	11	36

자료 : 표 Ⅶ-1과 같음.

주 : (1) 1965, 66, 67年의 19歲人口數는 1968年 現在의 22, 21 및 20歲人口數임.

(2) 比率은 當年度 卒業者에 대한 것임.

如何間 中學校卒業者만으로서도 1968年에는 약 85千名이 新規로 供給된다고 하겠다.

다음에 高校卒業者의 경우를 表 Ⅶ-2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968年에 高校卒業者數는 137千名이며 그 中 52.0%가 進學을 希望하고 29.5%가 실제로 進學을 하였다. 나머지 卒業者는 卒業者全體의 21.5%인 30千名이 就業하고 22.8%인 31千名이 無職狀態이며 其他가 26.3%인 36千名이다. 결국 卒業者中 29.5%인 進學者를 除外한 나머지가 大部分 年齡上으로 보아 經濟活動人口일 것이므로 新規供給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96千名中 30千名만이 就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就業者의 內容은 實業系가 斷然 높아 22千名이고 人文系가 8千名이며 無職者는 反對로 人文系가 20千名 實業系가 11千名으로 前者가 높다. 就業者에 있어서 性別로는 男子가 越等 높아 30千名中 21千名이 男子이고 9千名이 女子이다. 이렇게 볼 때 1968年에 19歲가 된 人口 總 531千名中 當年度卒業者인 137千名을 뺀 394千名이 이미 그 以前에 勞動市場에 나타나 一部는 就業하고 一部는 無職으로 있었으며 137千名中 41千名만 進學하고 96千名이 新規勞動供給인데 그 中 30千名만 就業하고 나머지는 無職者 其他에 追加되게 된다.

그리고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教育大學, 大學校, 大學院 및 各種學校가 포함된 高等教育機關의 경우는 表 Ⅶ-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우선 1968年의 경우 卒業者의 進路를 보면 總 40,961名中 就職者가 22,695名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無職者 6,191名, 入隊者 2,994名, 進學者 2,821名이며 未詳이 6,251名이다. 即 卒業生總數中 약 55.4%가 就職하고 있다. 이를 男女別로 보면 男子는 就職, 進學, 入隊에서 相對的으로 女子를 앞서며 女子는 無職者의 比率이 높다.

<표 Ⅶ-3> 高等教育機關 卒業者의 進路 및 產業別 就職者 단위 : 名

	計	進學者	就職者	無職者	入隊者	死亡者	未詳
1966	32,084	2,945	15,279	2,174	4,303	6	7,377
1967	35,519	3,289	17,631	4,883	4,774	22	4,920
1968	40,961	2,821	22,695	6,191	2,994	9	6,251
男	28,251	2,085	16,942	2,244	2,983	6	3,991
女	12,710	736	5,753	3,947	11	3	2,260

	產業別就職者											
	計	語文學系	藝術學系	人文科學系	社會科學系	體育學系	理學系	工學系	醫藥學系	農林學系	水產海洋學界	師範系
1966	15,279	1,035	464	900	4,715	181	880	2,245	1,735	838	146	2,140
1967	17,631	1,062	492	775	4,920	201	978	2,227	1,719	1,038	188	4,031
1968	22,695	1,396	718	1,025	5,686	265	1,410	3,532	2,176	1,529	379	4,579

자료 : 표 Ⅶ-1과 같음.

다음에 이들 就職者를 產業別로 보면 1968年 總就職者 22,695名中 社會科學系가 5,686名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師範系의 4,579名, 工業系 3,532名, 醫藥業系 2,176名, 農林學系 1,529名 등의 順이다. 高等教育機關의 卒業者는 1968年에 進學, 入隊 및 死亡者를 뺀 35,137名이 勞動市場에 新規 供給으로 나타나서 그中 22,695名이 就職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8年에 新規學校卒業者로서의 新規勞動供給은 中學校卒業者中 85千名, 高校卒業者中 96千名, 高等教育機關卒業者中 35千名으로 모두 216千名이며 그 가운데 高卒者 23千名, 高等教育機關卒業者 약 30千名으로 모두 53千名이 正常的으로 就職하고 나머지는 失業者로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에 勞動市場內部에서의 供給要因中 昇進등에 의한 垂直的 移動의 問題가 있는데 이러한 企業內의 昇進에 대한 資料는 利用할만한 것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企業은 大部分이 年功序列型 賃金體系를 가지고 있고 企業의 經營이 非公式的이며 利潤獲得의 手段을 經濟的 原理가 아니고 非經濟的 原理에 依存하는 바가 크므로 企業에 대한 忠誠心과 秘密의 嚴守등을 要求하며 企業間勞動移動이 매우 制限的이고 閉鎖的인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企業이 雇傭規模를 擴大하는 경우에도 新規採用은 未熟練者 또는 雇傭體系의 最下位者에 그치고 이들을 所定의 企業內訓練後 社員으로 半永久的으로 雇傭하는 政策을 取한다. 序列로 보아 最下位勞動者가 入社하면 一定한 昇進이 이루어지는 바 이때 一種의 勞動供給으로서의 昇進對象者는 企業外部와는 거의 完全히 차단된 채 企業內部的으로 약간의 경쟁이 있을 뿐이다.

2. 農民分解

勞動市場에 대한 勞動力供給을 規制하는 하나의 要因으로서 우리나라의 農民分解가 分析의 對象으로 되는 所以는 우리나라가 最近에 急速한 工業成長을 經驗하기 前까지는 農業이 主된 產業으로서 農村部門이 相對的 過剩人口의 pool 役割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農村의 過剩人口가 都市로 流出되는 가장 典型的인 原因이 農民分解인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1949年의 農地改革法에 의하여 소위 아메리카型的인, 農民的 土地所有方式에 의한 資本主義的인 農業發展의 方式이 選擇되었다. 이러한 方式에 의한 農業의 資本制化는 農業을 둘러싸고 있는 餘他產業部門에서의 資本主義의 發展과 함께 改革에 의하여 創設된 分割地農民的 土地所有制度의 分割地農民이 兩極으로 分解하여 農業브르조아와 農業프롤레타리아로 됨으로써 農業部門에서의 資本主義의 完成을 豫見하는 것이다. 資本主義의 外圍속에서 分割地農民은 적어도 圖式的으로는 少數가 農業資本家로 階層上昇을 行하고 大多數는 農業勞動者로 轉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農民分解에 의

하여 農業部門에서도 資本家가 自身의 責任下에 勞動者를 雇傭하여 生産活動을 行하는 資本制化가 可能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農民分解의 樣相은 古典的인 兩極分解로서의 그것과는 많은 相違點이 있다. 農地改革以後 지금까지 政府의 農業政策은 小農을 温存시킨다는 舊來의 政策을 踏襲한 위에 低農産物價格政策을 強行하여 왔기때문에 下部로의 小農의 轉落, 脫農民化는 계속되었어도 階層上昇의 經濟的 基盤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農民分解는 歪曲된 形態로 下層으로 向한 下降運動만이 加速化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事實은 農村에서 移出한 農家들에 대한 調査에서도 그대로 뒷받침 되고 있다. 移出農家의 農地所有變動과 移出行態에 관한 간단한 一事例調査[18]에 의하면 移出農家의 比率은 대체로 細農階層이 가장 크고(60%) 다음이 小農이며(31%) 中農이 가장 작다. (9%) 이것은 결국 零細農民의 脫農民化 또는 一定한 階降後의 移出 등으로 解釋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같은 推測은 移出農家의 經營地의 變動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移出農家의 經營地를 農地改革前과 移出當時를 對比하여 보아도 그러한 事實이 뒷받침 되는데 移出當時까지 經營地가 減少된 家口가 63%로 가장 많고 規模不變이 30%, 增加가 7%이므로 減少한 結果 移出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移出農家의 移出原因을 보더라도 ① 農土가 없거나 적어서 生計가 어려워가 37%로 가장 많고 ② 빚때문에가 3% ③ 都會地에 나가 成功한 家口員에게로가 22%, ④ 事故나 싸움때문에가 1%, ⑤ 其他가 37%로 되어있어서 移出은 약간의 非經濟的 事情에 의한 都市移轉(③의 一部)과 亦是 非經濟的인 ④ 1%를 除外하면 대부분이 農業經營의 失敗이기나 農業과 農村에 대한 否定으로서 移出하게 된것으로 앞서의 階層下降에 의한 脫農이라는 立場과 같은 內容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農民分解의 結果로서 農家戶數와 農業人口는 減少趨勢가 계속되고 있다. 즉 1969年末 現在 農家戶數는 2,546千戶로서 前年인 1968年에 比하여 32千戶가 減少하였으며 農業人口도 1969年의 15,589千名은 前年對比 319千名이나 減少하였다. 그 때문에 總人口中 農業人口의 比重은 49.6%로, 그리고 總戶數中 農家戶數의 比重은 47.0%로 各各 減少하였다. 그리고 農業部門에서 非農業部門으로의 人口의 移動을 생각해 보면 1968年과 1969年의 1年間에 農村의 人口增加率을 2.5%라고 할 때 自然增加數 3,977千名과 絶對的인 減少人口數 319千名을 合計한 약 4,296千名이 農業人口에서 非農業人口로 되었다고 할

(18) 拙稿「農地所有의 變動에 관한 一考察, 1949~1968」『經濟論集』1968年 12月 第Ⅶ卷 第4號, pp. 106-9 參照.

수 있다.

農村人口의 이와같은 大規模的인 都市에의 移動은 勿論 그 全部가 分割地農民의 階層下降에 의한 脫農民化에 의한 것은 아니다. 部分的으로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水準을 위시한 여러가지의 隔差擴大로 因하여 都市가 農村에 대하여 人口의 吸出力을 發揮하는 面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그러한 傾向을 主된 現象으로 보지 않고 反對로 農民分解에 의한 農村에서의 人口의 都市로의 壓出이라고 이를 보는 立場을 取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都市에서의 過剩人口의 堆積問題에서도 言及되겠지만 勞動市場에서의 勞動의 需要가 農村의 移動可能勞動力을 移動시키도록 刺戟하기에 앞서 우리는 都市의 소위 雜業層에 있는 失業 및 不完全就業者에게 먼저 傳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農民分解의 結果 農村에서 壓出이 不可避하게된 人口는 一旦 적절한 就業場所를 發見하기에 앞서 文字 그대로 壓出로서 都市에 移住하여 失業者로 되거나 不完全就業者로 됨으로써 都市雜業層人口를 增加시키는 것으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3. 都市過剩人口의 堆積問題

우리나라의 勞動力供給이 元來 過剩人口를 包容하고 있던 農村에서 始發한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하나 오늘날의 現象形態는 반드시 農村만이 過剩人口의 pool이 아니고 그 相當한 部分이 都市에 堆積되어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勞動市場에 대한 勞動力의 供給이 完全失業者의 就業일 경우도 있겠으나 相當한 部分은 農村의 小農과 都市의 第3次產業에 많이 存在하는 零細自營業主의 勞動者化過程으로 把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產業化過程에서 自營業主의 比重은 점차 減少하고 被雇傭者의 比重이 增大된다. 우리나라는 앞서 본바와 같이 農林業, 非農林業 共히 總就業者中 自營業主의 比重이 先進國에 比하여 越等히 높았다. 그러므로 農業部門은 이미 農民分解라는 面으로 그 脫農民過程을 보았거니와 都市에서는 農村에서 移住한 勞動力이 糊口의 必要때문에 第3次產業部門에서 零細한 自營業主가 되거나 被雇傭者가 되거나 하여 이 때 이들은 所得으로나 勞動時間으로 볼 때 거의 大部分이 不完全就業狀態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러한 推測은 前記의 事例調査結果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即 農村에서 移出하는 農家의 移出地를 보면 大都市가 全體의 45%, 中小都市가 27%, 他農村이 27%, 其他 1%로 되어 있어 移出農家는 약 72%가 都市로 移住할 뿐 아니라 移出農家의 移出直後의 就業狀況을 보면 ① 鑛工業部門은 7%, ② 商人, 품팔이 등 都市에서의 3次產業이 45%, 農業이 23%, ④ 不明 10%, ⑤ 其他 15%로 되어 있어 가장 큰 就業部門으로는 商人

품팔이등 都市에서의 3次產業部門이고 다음이 農業部門이고 가장 所望스러운 鑛工業部門으로의 移出은 微微하여 不可避하게 農村을 떠나는 勞動力이 매우 不完全한 形態로 都市의 第3次產業部門에 寄生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都市에 堆積되는 過剩勞動力은 都市에서 새로운 就業機會에 接近할 수 있는 可能性이 農村에 比하여 훨씬 클 것이므로 새로운 雇傭은 대체로 이미 農村을 떠나 都市의 소위 雜業層에 堆積되어 있는 勞動力에게 그 機會가 許容되고 따라서 農村에서 排出되는 勞動力은 一旦 都市로 移住하여 待機하는 經路를 밟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農民分解에서 보았듯이 一年間 400百以上의 農業人口가 사실상 非農業部門으로 移住하는 過程은 위에서와 같이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VIII. 勞動移動의 特徵

經濟는 끊임없이 變動하고 있기 때문에 變動하는 經濟에 있어서 勞動의 移動은 不可避的인 現象이다. 地域間 또는 產業間의 勞動의 移動은 相對的으로 더욱 成長하고 있는 地域이나 產業으로 勞動者가 移動하고 反對로 衰退하고 있는 地域이나 產業으로 부터는 勞動者가 流出한다.

이러한 勞動의 移動은 社會的으로 볼 때 한편 肯定的인 面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否定的인 側面도 없지 않다. 勞動者가 만약 낮은 賃金이나 劣惡한 勞動條件下에 雇傭되어 있다고 할 때 보다 나은 條件을 向하여 移動하는 것은 當該勞動者에게는 有益한 일이며 그때 勞動의 移動을 促進하는 例컨대 職業紹介機關의 機能은 社會的으로 必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否定的인 側面에서는 빈번한 勞動의 移動이 주로 使用者에 대하여 勞動者의 新規採用과 訓練 등에 대한 負擔을 增大시킨다든가 또는 만약 非自發的인 移動까지를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勞動者의 定着性을 해쳐서 勞動者에게 不安感을 주는 등의 面이 있다.

우리나라의 勞動의 地域間, 產業間의 移動은 이미 勞動의 供給構造에서 衰退產業인 農業部門에서 急速히 成長하고 있는 鑛工業 및 第3次產業으로 크게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地域的으로는 農民分解에 의하여 移出한 農民은 都市로 移住하여 都市의 雜業層을 形成하고 그들이 雇傭을 待期하는 現象을 지적하였다. 그 뿐 아니라 同一企業內에서의 垂直的 移動인 昇進등에 대하여도 前章에서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첫째 市道別人口의 移動을 通하여 勞動의 地域間 移動을 보다 具體的으로 파악토록 하고 둘째로

<표 Ⅷ-1> 轉 出 地 別 轉 出 狀 況

	總 轉 出	轉 出 率	地 域 內		地 域 外	
			轉 出 數	轉 出 率	轉 出 數	轉 出 率
서 울	539.7	11.4	467.0	9.9	72.7	1.5
부 산	149.2	8.9	118.7	7.1	30.5	1.8
경 기	162.8	5.0	94.0	2.9	68.8	2.2
강 원	100,3	5.5	52.6	2.9	47.7	2.6
충 북	74.1	4.8	31.6	2.1	42.5	2.7
충 남	116.6	3.9	52.6	1.8	64.0	2.1
전 북	104.0	4.1	44.5	1.8	59.5	2.3
전 남	132.0	3.2	67.3	1.7	64.7	1.6
경 북	260.8	5.8	182.4	4.1	78.4	1.7
경 남	148.2	4.6	62.4	1.9	85.8	2.7
제 주	8.4	2.4	3.2	0.9	5.2	1.5
국외 및 기타	4.1	0.0	4.1	—	—	—
총 계	1,800.2	5.9	1,180.4	—	619.8	—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70년판, p.246.
주 : (1) 동자료는 6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추계임.
(2) 전출율은 해당지역 연앙인구 100명당임.

는 勞動移動의 歸結點이라고 할 수 있는 就業(入職)과, 逆으로 勞動移動의 始發點이라고 할 수 있는 解雇(離職)에 대하여 그 比率과 內容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市道別 轉出狀況과 轉入狀況을 通하여 人口의 地域間 移動의 윤곽을 보기로 하고

<표 Ⅷ-2> 居 住 地 別 轉 入 狀 況

	總 轉 入	轉 入 率	地 域 內		地 域 外	
			轉 入 數	轉 入 率	轉 入 數	轉 入 率
서 울	724.4	15.4	467.0	9.9	257.4	5.5
부 산	197.3	11.8	118.7	7.1	78.6	4.7
경 기	180.1	5.6	4.0	2.9	86.1	2.7
강 원	86.7	4.8	52.6	2.9	34.1	1.9
충 북	46.9	3.1	31.6	2.1	15.3	1.0
충 남	82.9	2.8	52.6	1.8	30.3	1.0
전 북	60.8	2.4	44.5	1.8	16.3	0.6
전 남	91.6	2.3	67.3	1.7	24.3	0.6
경 북	232.1	5.2	182.4	4.1	49.7	1.1
경 남	91.8	2.9	62.4	1.9	29.4	0.9
제 주	5.6	1.6	3.2	0.9	2.3	0.7
총 수	1,800.2	5.9	1,176.3	—	623.9	—

자료 : 표 Ⅷ-1과 같음, p.247.

우선 轉出狀況을 보면 表 Ⅷ-1과 같다. 表에 의하면 여기서 主로 문제가 되는 地域外로의 轉出率은 大都市인 서울과 釜山을 비롯하여 全南, 慶北, 그리고 濟州가 相對的으로 낮고 忠北, 慶南, 江原, 全北, 京畿, 忠南등의 順으로 높다. 이러한 轉出率은 絶對數 自體보다도 轉出에 對應되는 轉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意味가 달라지는 것이다.

表 Ⅷ-2에 나타난 市道別 轉入率을 보면 서울과 釜山이 越等히 地域外에서의 轉入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即 서울은 外部로부터 257千名이 轉入하여 轉入率은 5.5%를 나타내고 있고, 釜山은 79千名으로 4.7%를 나타내었다. 이밖에도 轉入率로는 京畿가 2.7%, 江原이 1.9%로서 轉入이 많은 道에 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轉出率이 높았던 忠北, 慶南, 全北, 忠南 등은 例外없이 轉入率이 낮아 轉出率이 낮았던 地域은 轉入率이 높은 對照的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轉入率이 높은 地域에 人口增加가 加速化되는 것은 앞서 勞動의 供給에서 본 農民分解와 分解結果인 離農의 大都市指向적인 移動과 一致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人口 및 勞動力의 地域間移動의 한 特徵을 이루는 것이다.

다음에는 各各의 企業에 대하여 入職과 離職의 分析을 통하여 勞動의 移動狀況을 把握해 볼 수도 있다. 이 때 勞動의 移動이란 勞動者가 가장 具體的으로 어떤 企業에 入職하거나 離職하는 것을 意味하며 入職率과 離職率[19]을 合하여 勞動의 移動率이라고 한다.[20]

<표 Ⅷ-3> 全國 月別 勤勞者의 入職率 및 離職率

단위 : {名 %

區分 / 月別		入職						離職					
		總數		男子		女子		總數		男子		女子	
		入職者數	入職率	入職者數	入職率	入職者數	入職率	入職者數	入職率	入職者數	入職率	入職者數	入職率
70년	1월	38,758	4.7	22,897	4.4	15,861	5.4	44,535	5.5	20,989	4.0	23,546	8.0
	2월	41,357	5.1	22,911	4.4	18,446	6.4	39,775	4.9	21,640	4.1	18,135	6.3
	3월	64,075	7.7	36,373	6.7	27,702	9.4	42,687	5.1	22,857	4.2	19,830	6.7
	4월	53,571	6.7	33,500	6.4	20,071	7.2	44,067	5.5	24,850	4.7	19,219	6.9
	5월	41,047	4.9	22,776	4.1	18,271	6.5	47,360	5.6	26,157	4.7	21,203	7.5
	6월	34,686	4.2	18,364	3.3	16,322	5.8	40,624	4.9	20,238	3.7	20,386	7.2
	7월	43,673	5.3	24,968	4.5	18,705	6.8	47,198	5.7	20,702	5.0	19,496	7.0
	8월	29,610	3.6	14,885	2.8	14,725	5.2	35,398	4.3	19,637	3.6	15,761	5.6
	9월	29,213	3.6	15,554	2.9	13,659	4.9	40,095	4.9	20,660	3.8	19,435	7.0

자료 : 노동청, 『노동이동조사보고서』 1970 7~9월, pp. 16-7.

(19) 勞動廳은 다음과 같은 公式으로 入職率과 離職率을 計算하고 있다. (노동청, 『노동이동조사보고서』, 1970년 7~9월, p. 5 참조.)

$$\text{入職率} = \frac{\text{今月中入職者數}}{\text{前月末現在勤勞者數}} \times 100$$

$$\text{離職率} = \frac{\text{今月末離職者數}}{\text{前月末現在勤勞者數}} \times 100$$

表 Ⅷ-3에서 月別, 性別 勞動者의 入職率 및 離職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入職率은 3月과 4月에 7.7%와 6.7%로서 가장 높다. 이는 아마도 3,4月이 特別히 產業活動이 活潑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學制上 學年度末이 대개2, 3月이기 때문에 新規로 卒業하는 勞動力이 새로이 入職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3, 4月이 높은 것은 男子 및 女子에서 모두 같다. 이 資料는 農業을 除外한 勤勞者 10人 以上을 使用하는 全產業의 全事業體를 조사범위로 하고 실제 조사 對象으로는 1,712個의 標本事業體를 對象으로 한 것으로서 만약 勤勞者 5人以上을 對象으로 하였다면 여기서의 入職率 또는 離職率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離職率을 보면 入職과는 달리 月別로 別다른 增減이 없는 것이 特徵이라고 할수 있다. 入職率이 學校卒業期를 頂點으로 약간씩 月別로 變動하는데 比하여 離職은 그와 같은 현상이 별로 눈에 뜨이지 않으며 入職에서와 같이 離職에서도 女子의 離職率이 男子보다 훨씬 높은 것이 하나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各地域別로 勞動者의 入職 및 離職現象을 보면 表Ⅷ-4와 같다. 表에 따라 入職率과 離職率의 和로서의 勞動移動率을 본다면 1968年 6月現在 大邱가 18.1%로서 가장 높고 光州가 17.6%, 仁川이 14.0%이며 서울이 9.4%로서 가장 낮다. 그러나 이를 入職 또는 離職의 超過率로 보면 仁川은 높은 入職率에 比하여 離職率이 낮아 入職超過率은 4.0%이며 서울은 入職率이 낮은 代身 離職率도 낮아 入職超過率은 1.6%이고 大邱는 0.5%인 反面 光州는 離職率이 오히려 높아 離職超過率이 3.0%나 된다. 이러한 現象은 勿論

<표 Ⅷ-4> 各 地 域 의 勞 動 移 動 率

(1968年 6月) 단위 : %

	入職率		離職率		入職超過率	
	總數	女	總數	女	總數	女
서 울	5.5	6.2	3.9	4.3	1.6	1.9
仁 川	9.0	5.9	5.0	5.8	4.0	0.1
大 邱	9.3	9.1	8.8	8.9	0.5	0.2
光 州	7.3	8.0	10.3	12.7	−3.0	−4.7

자료 : 勞動廳, 『勞動市場情報』 1968. 7, p. 61.
주 : 入職超過率中 —는 離職超過率임.

(20) 入職과 離職現象을 어떤 企業內部的인 勞動의 移動으로 보아 或者는 勞動異動이라고 부르는 수도 있으나 入職과 離職은 企業을 中心으로 파악한 것일 뿐 企業內의 勞動移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社會的인 觀點에서나 勞動者의 立場에서나 혹은 使用者의 立場에서도 勞動移動이 終着되거나 또는 始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냥 勞動移動이라고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一時點의 事情을 反映할 뿐이지만 이것이 各地域의 勞動移動率을 대체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타난 比率들은 當該地域들의 經濟事情을 거의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入職과 離職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의 側面에서 把握할 수가 있는데 表 Ⅷ-5에는 入職의 經路, 前職經歷 그리고 入職者의 年齡階級이 나타나 있다.

<표 Ⅷ-5> 產業別 入職經路·前職經歷 및 年齡階級 단위 : %

월별	구분 / 산업별	入職經路					前職經歷							年齡階級				
		공직업안정소유	공공학교소개	연고자	광고	기타	미취업자	광업	제조업	상업	운수업	써비스업	기타	17세이하	18~19	20~39	40~59	60세이상
70.1	총수	1.9	2.8	59.3	20.1	15.6	44.6	6.4	22.7	1.2	7.9	5.0	12.5	3.3	32.3	59.2	5.1	0.01
3	총수	1.1	3.0	52.0	22.9	21.0	40.6	3.6	26.4	1.7	5.7	5.1	16.9	2.8	32.0	59.9	5.3	—
6	총수	3.3	2.9	45.8	24.1	23.9	41.6	3.2	27.8	1.6	4.6	4.1	17.2	4.7	26.4	64.0	4.9	—
9	총수 총	2.1	3.2	46.3	27.0	21.4	43.7	2.9	25.2	2.0	4.8	2.9	18.6	4.0	32.8	58.8	4.5	—
	총수 여	2.9	3.0	39.9	36.6	17.7	52.0	0.5	28.6	0.6	2.6	2.8	12.9	7.0	49.4	43.4	0.3	—
	광업 총	1.4	0.3	57.1	10.4	30.8	26.0	46.6	5.0	1.4	0.8	1.5	18.7	0.3	3.1	78.5	18.1	—
	광업 여	—	—	84.2	—	15.8	57.9	15.8	5.3	—	—	—	21.1	—	36.8	57.9	5.3	—
	제조업 총	2.1	1.8	47.2	32.2	16.6	48.5	0.7	30.9	2.2	0.9	1.3	15.6	4.6	36.6	57.8	0.9	—
	제조업 여	2.8	1.0	40.6	39.5	16.1	53.7	0.5	31.4	0.6	0.1	1.1	12.6	7.1	49.2	43.5	0.2	—
	건설업 총	2.0	7.8	66.7	—	23.5	19.6	3.9	5.9	5.9	5.9	5.9	52.9	—	27.5	66.7	5.9	—
	건설업 여	25.0	—	75.0	—	—	75.0	—	25.0	—	—	—	—	—	75.0	25.0	—	—
	전기가스업 총	—	—	25.0	—	75.0	8.3	—	4.2	—	—	20.8	66.7	—	—	100	—	—
	전기가스업 여	—	—	100	—	—	—	—	—	—	—	—	100	—	—	100	—	—
	상업 총	—	0.9	17.2	5.6	76.3	27.0	2.7	0.3	2.4	1.5	8.0	58.2	4.5	6.2	77.4	11.9	—
	상업 여	—	20.9	18.8	—	78.3	55.1	—	—	4.3	1.4	—	39.5	21.7	21.7	52.2	4.3	—
	운수보관업 총	2.5	10.4	52.6	7.4	27.1	30.5	0.2	5.3	1.2	43.3	13.1	6.4	1.8	33.7	59.7	4.7	—
	운수보관업 여	3.8	25.4	30.2	13.9	26.6	34.7	—	6.3	—	33.8	18.8	6.5	4.3	60.9	34.1	—	—
	써비스업 총	2.7	17.7	20.2	4.3	55.5	14.7	—	0.2	0.5	0.2	9.6	74.8	0.9	9.4	38.5	51.2	—
	써비스업 여	3.8	11.4	45.7	5.7	33.3	33.3	—	—	—	—	26.7	40.0	4.8	21.9	72.4	1.0	—

자료 : 노동청, 『노동이동조사보고서』 1970년 7~9월, pp. 68~71.

入職經路는 分期別로 약간씩의 相違가 있기는 하나 緣故者의 紹介에 의한 入職이 斷然 높으며 入職者의 過半을 占하고 있고 다음이 廣告에 의한 入職이며 公共職業安定所 經由나 學校의 紹介에 의한 比率은 아직도 매우 낮다.

그리고 前職經歷別로는 亦是 未就業者狀態에서의 入職이 약 40~45%로 가장 높고 다음이 製造業으로 약 25% 內外이며 運輸業, 써비스業, 鑛業, 商業의 順으로 높다. 入職者의 年令階級은 20~39歲가 斷然높아 전체 入職者의 약 60%를 占하며 다음이 18~19歲로 不過 2歲間隔임에도 不拘하고 30%를 超過하여 入職者의 많은 數가 젊은 年令層임을 알 수

<표 Ⅷ-6> 産業別 離職理由 勤續年數 및 年齡階級 단위 : %

월별	구분 / 산업별		離職理由								勤續年數					年齡階層				
			고용계약만료	사업경영상해고	귀책사유해고	사망	의원퇴직	정년퇴직	휴직	기타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17세이하	18~19	20~39	40~59	60세이상
70. 1	총수		0.7	25.3	3.8	0.4	61.1	0.2	1.4	6.8	52.9	21.3	23.1	2.7	2.4	23.6	66.6	7.2	—
3	총수		0.5	2.1	3.3	0.1	74.3	0.7	1.4	14.9	66.8	25.2	6.2	2.4	1.8	31.0	62.0	5.0	—
6	총수		1.4	3.0	3.5	0.5	77.1	0.2	1.8	12.5	67.1	24.2	6.2	2.5	2.5	30.2	63.7	3.5	0.1
9	총수	총	2.8	5.8	5.3	0.2	70.2	0.9	2.2	12.6	66.1	24.9	6.3	2.8	2.8	28.9	63.3	4.9	0.2
		여	0.1	4.0	5.1	0.1	75.6	1.1	2.3	11.6	69.6	23.1	5.8	1.5	3.9	41.5	53.8	0.7	—
	광업	총	—	1.3	0.5	0.2	75.7	0.3	3.3	17.7	61.0	23.5	8.0	7.5	0.3	7.5	72.2	20.0	—
		여	—	—	—	—	90.9	3.0	—	6.4	42.4	45.4	9.1	3.0	3.0	24.2	66.7	6.4	—
	제조업	총	0.6	6.8	6.1	9.1	72.0	0.7	2.0	11.5	66.9	25.3	5.8	1.9	3.2	31.6	62.8	2.3	0.1
		여	0.0	4.4	5.3	0.1	75.6	1.2	2.1	11.2	70.0	22.7	5.9	1.4	4.1	41.4	54.0	0.5	—
	건설업	총	83.2	0.7	0.2	0.5	12.3	1.0	0.2	1.9	91.3	4.8	2 2	1.7	—	2.6	59.9	37.5	—
		여	—	—	—	—	—	—	—	100	100	—	—	—	—	100	—	—	—
	전기가스업	총	—	—	—	—	35.7	1.8	14.3	48.2	23.2	19.6	33.9	23.2	—	1.8	75.0	23.2	—
		여	—	—	—	—	33.3	—	—	66.7	33.3	33.3	33.3	—	—	—	100	—	—
	상업	총	—	5.7	0.9	—	48.3	1.8	1.3	42.1	27.8	24.8	23.0	24.3	—	16.1	75.7	8.3	—
		여	—	—	—	—	65.1	—	—	33.7	18.6	32.6	27.9	17.9	—	3.4	95.3	1.1	—
	운수보관업	총	0.1	0.1	2.4	0.2	74.2	1.9	4.0	17.1	65.5	26.1	5.8	2.6	1.8	27.1	59.7	9.8	1.6
		여	—	—	4.0	—	78.5	—	6.3	11.1	74.9	23.2	1.9	—	3.5	51.8	23.2	2.3	—
	써비스업	총	6.1	—	3.0	3.0	68.7	4.3	—	14.8	43.9	38.7	10.4	7.0	—	23.9	67.4	5.7	3.0
		여	7.0	—	1.0	2.0	69.0	—	—	21.0	59.0	32.0	2.0	7.0	—	38.0	57.0	15.0	—

자료 : 노동청, 『노동이동조사보고서』, 1970년 7~9월, pp. 72~75.

있게 한다.

1970年 9月基準으로 各 産業別 入職者의 內容은 産業別로 약간씩의 差異가 있는바 表에 나타난 것과 같다.

다음에 離職의 內容을 表 Ⅷ-6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離職者의 離職理由를 보면 依願退職이 약 70%以上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事業經營上解雇, 歸責事由解雇, 休職등으로 되어 있다. 産業別로는 建設業에서 雇傭契約滿了에 의한 離職이 83.2%로 壓倒的으로 많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日雇 乃至 臨時雇勞動을 많이 使用하는 建設業의 特殊性에 基因하는 것 같다. 勤續年數로는 離職者中 약 65%정도가 1年未滿의 勤續年數를 가진 者들이며 약 25%정도가 1~3年 未滿으로 약 90%가 3年未滿의 勤續經歷者로 되어 있다.

産業別로 볼 때 勤續年數에는 相當한 差異가 보이는데 勤續年數가 1年未滿으로 매우 많은 産業은 建設業이 100%, 運輸保管業의 女子勞動者, 製造業의 女子勞動者 등이 현저히

높은 편이며 商業, 電氣가스業등이 비교적 긴 편이다.

年令階級으로는 20~39歲가 60~65%이며 18~19歲가 25~30%이다. 産業別로 본 年令階級은 比較的 年令이 높은 勞動者도 多數雇傭하는 鑛業, 建設業, 電氣가스業 등이 있는 反面 16歲以下 勞動者가 多數雇傭된 製造業, 建設業, 運輸保管業 및 써어비스業의 主로 女子勞動者의 경우도 있다.

IX. 職業安定機構와 그 機能

職業安定業務는 勞動市場을 좁은 意味로 파악할 때 勞動의 需要와 供給이 만나서 그 決濟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職業紹介所와 같은 곳이므로, 社會的으로 重要한 業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表 Ⅷ-5에서 본바와 같이 公共職業安定機關을 통하여 入職하는 比率이 不過 2% 內外 밖에 되지 않았지만 先進國에는 活潑한 勞動市場의 情報蒐集과 傳達등을 통하여 美國과 같이 就業率의 약 1/4이 이러한 機關을 통하여 就業하는 것에서 보듯 매우 큰 役割을 하고 있다.

그러나 職業安定機關이 國家的인 保護支援下에 아무리 高度의 活動을 展開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機構를 통한 就業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기 마련이다. 美國등과 같이 失業補償制度가 있고 이를 背景으로 하여 就業斡旋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거니와 그러한 惠澤도 없는 곳에서는 職業安定機關이 勞動者나 使用者 兩側에서 共히 白眼視 當하기 쉽다. 즉 勞動者는 職業安定機關에서는 오직 勞動條件이 나쁜 就業機會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使用者는 同機關에 登錄하여 求職하는 勞動者는 資質이 낮은 勞動者 뿐이라는 思考가 支配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積極的인 職業安定業務의 展開는 不信을 더욱 助長할 可能性도 있어 同機關의 活動에는 限界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具體的인 求職, 求人과 就業斡旋外에도 勞動市場에 대하여 勞動의 流動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勞動市場의 情報를 蒐集配布한다든지 相談 및 適性檢査, 勤勞者의 福祉施設擴張 및 維持, 私設職業案內所의 指導監督등 社會的으로 重要한 機能을 擔當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職業安定機關의 狀況과 그 業績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職業安定法에 따라 全國的으로 8個의 1級職業安定所가 서울, 永登浦, 仁川, 春川, 大田, 大邱, 釜山, 光州에 있고 2級職業安定所로서는 淸州, 全州, 馬山, 濟州에 4個所가 있으며 3級職業安定所가 13個所 그리고 이러한 國立職業安定所外에 市·道立 職業

<표 Ⅸ-1> 職業案內所 就業斡旋實績 단위 : 名

구분 / 년월일	구 인		구 직		취 업		광 역 직 업 소 개					
							구 인		구 직		취 업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68	14,444	6,307	10,775	6,013	6,801	3,658						
69	42,301	24,869	36,484	12,397	11,152	5,950	5,854	4,392	1,442	896	368	272
70	23,434	11,851	33,427	8,094	10,258	3,486	550	485	27	13	41	13
71. 1	1,496	852	1,071	581	453	116	7	7	7	7	7	7
2	2,653	1,283	1,922	744	1,173	356	7	7	7	7	7	7
3	4,759	2,575	4,139	1,644	2,782	1,122	8	7	9	7	8	7
4	6,633	3,342	5,285	1,892	3,508	1,303	8	7	9	7	8	7
5	9,055	4,788	6,417	2,110	4,214	1,444	736	8	9	7	8	7
6	10,979	5,922	7,775	2,595	5,179	1,827	736	8	9	7	11	10

자료 : 勞動廳

案內所가 9個所가 있다.

그리고 이들 職業安定機關의 年度別 就業斡旋 實績을 보면 表 Ⅸ-1과 같다.

1968年에는 求人數 약 14千名에 대하여 求職者數는 약 11千名으로 그中 약 7千名을 就業시켰으며 그 가운데 女子의 比率은 약 切半이다. 1969年에는 求人 및 求職 모두 急激히 늘어 職業案內機關利用者가 늘어 났다가 1970年에는 다시 求人數는 크게 減少되고 求職者數도 약간 鈍化되었다. 그리고 各職業紹介所間을 통하여 就業紹介로 이루어지는 就業인 廣域職業 紹介는 1969年에 相當한 實績을 올렸을 뿐, 앞으로 業務의 機械化(EDPS의 導入등)를 기다려 크게 發展될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職業安定機關은 女子未熟練勞動者등과 같은 극히 低水準의 熟練度를 가진 勞動力을 就業시키는 補助的인 役割밖에 해오지 못하였으며 基幹勞動者는 거의 大部分 이러한 機關外部에서 各企業에서 獨自的으로 雇傭하여 왔다.

그러나 대단히 經驗이 日淺한 同業務에 대한 社會的 重要性이 점차 認識되고 있고 勞動行政의 積極的인 改善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機能은 크게 發展될 것으로 보인다.

X. 結 語

지금까지 本稿에서는 主로 廣義의 勞動市場으로서의 韓國의 勞動市場構造를 여러가지 側面에 따라 考察하였다. 勞動市場에 대한 同題는 결코 狹義의 職業安定機關과 같은 의미

의 勞動市場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韓國에 있어서의 問題는 오히려 점차 勞動力에 대한 供給過剩狀態에서 均衡 乃至 不足으로 轉換되는 時點에서 보다 넓은 의미에는 勞動市場에서의 需要와 供給을 規制하는 要因에 대한 廣範圍한 分析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立場에서 勞動市場論의 接近方法이 檢討되었으며 現在의 勞動力의 存在樣式과 就業 및 失業의 構造, 女子勞動과 少年勞動의 樣相을 把握하고 나아가 需要와 供給에 作用하는 各種要因을 可及的 源泉的으로 浮刻시키고자 하였다 需要構造分析에서는 勞動의 需要者로서의 資本의 性格이나 勞動政策등이 檢討되었고 供給構造에서는 新規卒業者 農民分解 그리고 都市過剩人口의 推積문제등을 살펴 보았다. 이밖에도 勞動移動과 職業安定機關에 대하여 그 特徵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勞動市場論에 대한 方法論的인 發展과 勞動의 需要 및 供給構造 그리고 移動과 職業安定機關등에 대한 보다 具體的인 앞으로의 硏究는 勞動市場의 構造를 보다 徹底히 把握케 함으로써 보다 合理的인 勞動政策의 樹立에 도움을 줄 것이며 本稿에서 序說的으로 다룬 問題들은 앞으로 獨立的인 課題로서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 :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硏究所 硏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專任講師